

#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53호



## 언제나 자신에게 진실되라

청하이 무상사/ 1996. 7. 19. 캄보디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56

여러분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알려 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위궤양을 얻거나 분노를 속으로 삼키는 게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역시 부처입니다! 불필요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왜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만약 정말로 그 래야만 하고,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을 상황이라면 그때는 자신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한지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처리하느라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입장만으로도 충분히 바쁘니까요! 그러니 결혼이나 타협, 인간관계 등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최상의 것을 이끌어 내십시오. 그것이 진짜 인류에게 봉사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에게 항상 양보만 한다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망가지거나 폭발하고 결국엔 이혼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땐 이미 늦은 거지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만약 정말 참을 수 없고 타협할 길이 없다면 그냥 놓아 버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보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렇지 살지 아니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든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새로 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겁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면 됩니다. 그 실수를 계속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고 배우자가 항상 여러분을 이용하기만 하고 여러분 혼자만 늘 괴롭고 학대받고 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어찌면 이다음에 더 심한 배우자를 만날 걱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걸 누가 압니까! 한번 해보세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래서 더 심한 사람을 만나면 “에이, 더 나쁘네.”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스승님과 대중 웃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자신을 잘 돌보고 가장 좋은 결과를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여러분이 갈망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단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에게 진실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 자신에게 진실해야 하고요. 그들이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고 자신을 가장하거나 위선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건 그들 문제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나와 어울릴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찾는 게 낫겠어. 아니면 그(그녀)가 변하거나 자신에게 진실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런 다음에 얘기하자.” 하고요.

배우자나 사업 관계, 다른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자신에게 진실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행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자신에게 진실되지 않다면 언제 그러겠습니까? 천국에 가세요? 거기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이 되고 싶은, 동기가 정확하다면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느낌에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 차 례

## 앞표지 안/ 스승님 말씀

언제나 자신에게 진실되라

## 2 다채로운 이벤트

스리랑카/ 네팔/ 홍콩/ 포모사/ 태국/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영국/ 토고

## 10 행사 메모

## 11/ 31/ 33/ 35 골라 뽑은 수행문답

지구의 고양을 돕는 것이 스승을 돕는 것이다/  
세속적 의무를 다하며 수행하는 삶을 영위하라/  
집착을 놓는 것이 죽은 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다/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명상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레  
온다/ 깨달음과 논리는 공존할 수 있다/  
긍정과 부정의 이원성을 초월하라/  
자연스럽게 명상을 즐겨라

## 15/22 스승과 제자 사이

축복받은 고통/ 참된 염불 법문

## 16 시

감미로운 사랑의 비/ 사랑의 바다

## 17 스승님의 농담

같은 행동은 같은 결과를 낳는 법/ 구두쇠의 기도

## 18 자연 속에 담긴 이치

풍수(風水): 고대 중국의 과학

## 20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동물의 훌륭한 품성을 인정하라

## 23 동물의 유정 세계

산토: 나의 충실한 친구이자 스승/  
기적의 개와 동물에 대한 사랑을 보여 준 인정 많은 소녀

## 27 매체 보도

주인의 생명을 구한 캥거루, 상을 받다/  
토론토인의 가슴을 사로잡은 단테/  
바느질하는 충명한 앵무새

## 29/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책/ CD/ DVD

## 30 신기한 감응

스승님의 무한한 빛으로 기쁘게 가다

## 32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공주의 물방울 목걸이

## 34 과학과 영성

실수를 통한 배움이 영적 성장을 돕는다

## 36 수행의 길목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스승님

## 37 지혜어록

모든 생명을 아끼면 자연의 균형이 유지된다

## 37 감로법어

지혜롭고 자연스럽게 일을 하라

## 38 사랑의 실천

포모사/ 2004년 5월과 6월 동안 포모사 내 각종 사랑의  
활동 지출 내역 일람표

## 41 관음 웹사이트

## 42 전세계 연락처

## 48/ 뒤표지 안 무상예술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만세등의 매혹적인 아름다움/  
칭하이 무상사의 만세등

출판일자 : 2004. 11. 13.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라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53호



## 스리랑카 소식

# 스승님의 방문 기념일에 끝없는 사랑을 함께 나누다

로렌스 페르난도/ 콜롬보

[콜롬보] 최근 콜롬보 센터 동수들은 사랑하는 스승님이 인도양의 진주라 일컬어지는 스리랑카를 방문하신 지 4년째가 되는 해를 기리는 뜻에서 일련의 영적 행사들을 개최했다.

스승님이 스리랑카를 방문하셨을 당시는 북부 지역에서 일어나 지난 20여 년간 전국적으로 파급을 미치던 전쟁이 한창이었으며 평화의 조짐은 아득히 멀어 보였다. 분쟁 기간 내내 가차없는 폭탄 투하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런 일은 스승님의 도착 바로 직전에도 발생했다.

그러나 기적처럼 스승님이 도착하시자 분쟁이 사그라지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는 평화 회담이 진행되었다. 이에 스리랑카 동수들은 지금까지도 조국에 이런 놀라운 평화의 선물을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고 있다.

동수들은 이 역사적인 일을 기리고자 손님들을 초대해 콜롬보 센터에 함께 모여서 스리랑카 전통에 따라 등불을 켜는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모두들 축하 공연을 감상한 후 우유 밥과 유병 등 전통 간식을 함께 즐기고 전시된 스승님의 출판물과



예술 작품도 감상했다.

그후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몇몇 동수들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과자와 케이크, 음료수, 옷 등을 스님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기증했다. 선물을 받은 어린이들은 스승님의 사랑의 선물에 매우 감사해했다. 동수들은 앞으로도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로 했으며, 또한 스승님과 재회해 그 무한한 사랑 속에 잠길 날을 고대했다.



## 네팔 소식

# 구루 푸르니마 축제를 통해 구루 칭하이를 기리다

아자이 쉬레스타/ 카트만두

[카트만두] 힌두교인들은 수천 년 동안 7월 보름이면 구루 푸르니마 축제를 열어 스승들에 대한 경의와 사랑을 표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구(Gu)’는 어둠, 무지를 뜻하며 ‘루(Ru)’는 그 어둠을 제거하는 사



람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명을 제거하는 이가 바로 구루인 것이다. 한편 푸르니마는 ‘보름 밤’을 뜻한다.

2004년 7월 3일, 네팔 동수들은 이 전통에 따라 가장 사랑하는 칭하이 구루를 기리는 축제를 카트만두 센터에서 열었다. 모든 제자들은 행사를 치르며 자신의 삶을 180도 바꿔 주신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 축

복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는 한편 스승님의 영원한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 영성의 기운으로 물든 황금 도서전

홍콩 뉴스그룹

[홍콩] 홍콩 동수들은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2004 중화 도서전’에서 대중들에게 관음법문을 소개했다. 이번 흥법은 개방적인 추세의 홍콩 사회에 새로운 영성의 흐름을 불어넣었다.

이번 행사는 홍콩 무역진흥청의 주관으로 무역센터에서 열렸는데, 도서전 대변인에 따르면 전체 방문객 수는 50만 명이 넘고 영성 분야는 전체 전시 분야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영성 수행 및 종교 서적들이 홍콩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더욱더 고무적인 일은 올해 우리 출판물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명상에 대한 관념과 수행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일부란 사실을 매우 흔쾌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방문객들은 또한 동수들과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우리 부스에서는 스승님의 책과 DVD가 전시된 가운데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가 계속적으로 상영되었다. 동수들은 책갈피와 견본책자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손님들과 얘기를 나누며 관음법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스승님의 성스러운 모습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홍콩 센터는 특별히 싱가포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스승님의 모습이 담긴 대형 포스터와 관음법문에 대한 요약 설명, 스승님의 출판물 소개 등에 관련된 대형 포스터를 각각 인쇄했는데, 이 모든 포스터들이 많은 참관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수많은 손님들이 이미 스승님의 이름을 접한 바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견본책자를 얻어 갔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승

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은 채식주의자와 수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 방문객은 견본책자를 읽고선 다음날 다시 찾아와 『즉각 깨닫는 열쇠』 책자를 구입하고 방편법을 배우는 데에도 열



의를 보였다.

태국에서 온 또 다른 방문객은 견본책자를 보자마자 울면서 스승님의 법상 앞에 합장을 하고는 “스승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올렸다. 2000년 스승님의 태국 강연을 놓친 후 줄곧 스승님을 찾으며 채식 을 해 온 그녀는 이렇게 외국에서 스승님과 만나게 된 것에 몹시 감격스러워했다!

또한 오랜 시간 다양하게 전시된 출판물을 주의 깊게 읽던 한 청년은 스승님의 지혜와 재능, 엄청난 힘에 경외심을 느꼈다. 그는 다양한 종교를 섭렵한 구도자였는데, 우리 동수와 영적인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깨달은 스승은 사람들과 내면으로 소통하며 육신을 초월한다!” 그는 조만간 포모사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시후 센터의 주소를 서둘러 메모했다.

몇몇 기독교인들은 동수들과 함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성인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인 후 대화를 마무리할 무

렵에는 인터넷에서 관음법문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겠다고 겸손하게 얘기했다. 이밖에 우리 부스를 방문한 몇몇 소녀들은 책갈피를 나눠 주는 일을 돕겠다고 나서며 기쁜 모습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 홍콩 동수들은 이번 2004 중화 도서전과 같은 행사를 통해 황금시대가 도래한 이후 홍콩 사회의 영적 기운이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어 보다 조화로운 수준으로 고양되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 포모사 소식

# 여유 있고 즐거웠던 여름 캠프

타오위안 뉴스그룹

[타오위안] 타오위안과 신주, 이란 등 3개 센터 동수들은 점통더위를 식히기 위해 산으로 첩첩 둘러싸인 아름다운 타오위안의 푸싱향 산중에서 가족과 함께 이틀간의 여름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재미있는 경연 대회와 별밤 파티, 보물찾기, 그리고 숨가쁜 물놀이 등이 주요 행사를 이루었다. 이 중 경연 대회는 서로 간의 협동 정신을 승리의 관건으로 삼아 황금시대를 반영한 긍정적인 주제들을 통해 만물은 동일체라는 것을 나타낸 행사였다.

캠프가 끝나는 날 오후에는 어른과 어린이 동수들이 가족과 함께 주변을 청소했다. 공연과 작업 팀에 참여했던 많은 동수들은 “이번 캠프 준비 과정과 공연은 예전 캠프 때만큼 힘들지도 않았을뿐더러 지루하지도 않아서 자연스레 좋은 성과가 얻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동수들의 이 말 속에는 스승님의 축복으로 캠프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대한 기쁨과 놀라움이 담겨 있다.







## 태국 소식

# 전세계의 구도자를 환영하다

방콕 뉴스그룹

[방콕] 7월 11일 태국 동수들은 방콕 교외에 위치한 수코타이 타마타르트 통신대학에서 2004년 7월 11일에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다시 한 번 스승님의 가르침을 대중적으로 소개할 기회를 가졌다.

마침 우리 행사장 부근에선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15회 국제 에이즈 회의가 개최되고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러 온 미얀마와 캄보디아, 포모사 등 여러 국가의 출가승들도 우리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표단들은 스승님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며 스승님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특히 우리 강연회를 몹시 기다렸다가 참석한 포모사에서 온 한 승려는 엄청난 수량의 견본책자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 외 다른 많은 참석자들도 스승님의 비디오를 열심히 시청하며 스승님

의 생애와 관음법문에 대해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졌다. 이후 많은 이들이 자리에 남아 방편법을 배웠으며 일부는 입문을 신청하기도 했다.



명상을 마친 후 새로운 방법뿐 아니라 한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내면의 비전에 감격한 나머지 우는 얼굴로 기쁨을 표하면서 스승님의 책과 테이프를 통해 더 많은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했다.

태국의 사형사저들은 진리를 나눈 이런 멋진 기회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 대한민국 소식

# 보다 밝게 빛나는 영적인 섬

부산 뉴스그룹

[영도] 부산의 영도는 두 개의 대교로 육지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영도에 사는 동수들은

2003년도에 전국 각지에서 열린 비디오 강연에 크게 고무되어 영도의

주민들을 위해서 비디오 강연회와 무료 채식 뷔페를 열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스승님의 크신 축복과 동수들의 열성으로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안 배되었고 일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일례로 이번 흥법을 준비하던 한 사저가 처음 영도구청의 담당자를 찾아갔을 때는 홍보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허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신의 축복으로 일주일 뒤 새로 부임한 담당 과장은 우리 동수들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고귀한 의도를 이해하고 우리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마침내 2004년 7월 11일,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자 2백 명이 넘는 신실한 방문객들이 비디오 강연회와 채식 뷔페에 참석했고, 관음법문 명상법과 채식의 이로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많은 것을 배워 갔다. 많은 참석자들이 방편법을 배웠고 그 중 일부는 입문을 신청했다. 방

편법을 배운 이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밝은 기운은 이 특별했던 행사의 사랑과 기쁨을 그대로 반영해 주었다.

영도 동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신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는 한편, 다음달 8월에는 부산 근교의 도시 울산에서 또 다른 흥법 활동을 갖기를 신실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 스승님의 지혜로써 심신과 영혼을 결집시키다

린 야마트/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최근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은 사흘간 열린 ‘2004 신생활 박람회’에 참가했다. 행사 기간 동안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산하 세 채식 식당은 풍성한 채식 요리를 선보여 다른 부스 참가자와 손님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많은 손님들이 음식을 즐기며 이전에 채식 식당에서 있었던 좋은 추억들을 떠올렸다.

우리 부스는 다른 부스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많은 방문객들이 들러 시식을 요청하고 요리를 주문했으며, 수많은 종교 단체 및 채식 음식 부스들 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박람회 첫날, 한 여성이 멀리서부터 동수들의 기를 느끼고 기쁨에 싸인 듯한 우리 부스로 이끌려 오게 됐다고 얘기했다. 그러다가 그녀는 근처에 걸려 있는 스승님의 대형 법상을 보고선 그 강렬한 진동이 바로 그곳에서 발생함을 깨달았다. 이어 흥분된 모습으로 이곳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발산되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경외감에 말을 잃던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몇 번이나 다시 찾아와 사랑하는 스승님의 분위기와 관음 가족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함께 나누었다. 스승님과 사람들의 인연에 얹힌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박람회 내내 발견돼 우리에게 큰 감동



을 주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관음 부스를 방문하는 인파가 경이적으로 늘어나면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시



청하고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가져가는 참관객의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 TV 모니터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비디오를 시청하며 시간 가는 것도 잊은 채 몇 시간 동안이나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스승님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언급하면서 스승님에 대한 사랑을 애기했다. 또한 집과 거리가 멀어도 산호세 채식 식당을 방문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2004 샌프란시스코 신생활 박람회에 참여한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세상의 다른 성인들과 나눌 수 있도록 멋진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내년 행사를 고대했다.



## 관음 가족, 체육 대회를 통해 스승님의 법문을 전하다

샌프란시스코 · 산호세 뉴스그룹

[샌프란시스코] 2004년 7월 18일,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센터의 동수들은 북부 캘리포니아의 데안자 대학에서 열린 제20회 재미 중화인 체육 대회에 참가했다.

행사는 지역 종교 단체와 학교, 자선단체, 사업체 등 50여 개 단체의 퍼레이드로 시작되었는데, 동수들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형 깃발을 들고 활기차게 행진했다. 사회자는 우리가 행진하는 동안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전 세계적인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들이 하루에 2시간 반 이상 명상하고 있는 수행 단체라고 소개했다.

퍼레이드 행진 외에 동수들은 대학교 운동장 옆에 부스를 설치하고 스승님의 간행물을 선보이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했다. 또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가 끊임없이 상영되고 있는 데다 스승님의 대형 법상이 전시된 관계로 우리 부스에는 스승님의 자비로운 진동이 흘러 넘쳤다. 산호세 채식 식당의 요리가 실린 다채로운 사진들도 메뉴와 함께 부스에 전시되었다. 어떤 방문객은 본인은 채식을 하지 않지만 채식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 메뉴를 가져가기도 했다. 또 한 남성은 다른 스승을 따르고 있는데도 우리 부스를 찾아와 수행과 영성에 대해 질문하며 동수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요즘 미국 내 중국 음식점에서는 행운의 쿠키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스승님의 감로법어를 넣은 특별한 채식 행운의 쿠키를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며 손님들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날의 운수를 읽는 대신 스승님의 말씀에 담긴 지혜와 축복을 통해 영혼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록 했다.

행사를 마친 후 산호세와 샌프란시스코 동수들은 이번 중화인 체육 대회에 참석함으로써 헌신의 마음으로 위없는 진리를 나누고 대중에게 봉사할 수 있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더불어 나중에도 이런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신실한 구도자들에게 살아 계신 큰스승을 알릴 수 있기를 소망했다.





## 캐나다 온타리오 소식

### 동포들과 천국 아버지의 사랑 나누기

프라나 데비/ 토론토

[토론토] 2004년 6월 20일 아버지의 날에 토론토 센터 동수들은 북  
요크 중앙도서관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혼들이 많았다.

한 남성은 『즉각 깨닫는 열쇠 문답록』 한 권을 십여 년 동안 소장하  
고 있다가 관음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행사 소식을 접하고선 캐나다 서  
해안의 밴쿠버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 청중들 대다수가 이미 다른 명  
상법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신실하게 방편법을 신청했다. 심지어 한 여  
성은 강연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관음법문 입문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  
다.

강연회가 끝난 후 일주일 뒤 많은 새 방편법 수행자들이 토론토 센  
터의 방편법 단제명상에 참석했다. 그 중 한 여성은 매일 30분 명상하  
기에 앞서 스승님의 법문을 읽으면 명상 때 훨씬 집중이 잘 된다고 애  
기했다. 그녀는 센터에서 스승님의 강연 테이프와 책을 빌려 갈 수 있  
다는 걸 알고는 매우 기뻐했다.

북요크 중앙도서관 강연회는 토론토 동수들에게 대단한 축복이었다.  
한 사저에게 이번 행사에 대해 묻자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는 것 같았어요.” 하고 소감을 얘기했다. 다른 동  
수들도 이 사저와 마찬가지로 신의 소중한 사랑과 가르침을 동포들과

나눌 수 있었던 기회를 소중히 생  
각하며 사랑하는 스승님이 계시는 이  
특별한 시대에 이런 행사가 계속되  
기를 희망했다.



## 영국 소식

### 황금시대에 깨달음을 전하는 조력자

런던 뉴스그룹

[런던] 런던 동수들은 2004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심신과  
영혼의 축제’에 참가해 부스를 설치하고 칭하이 무상사의 법문을 주민  
들에게 전했다. 행사 기간 동안 작업 팀은 흥분 속에 잠도 별로 못 잤

지만 스승님의 깨달음의 메시지에 관  
심을 가진 방문객들과 이야기할 때는  
기운이 백 배 충전되어 조금도 피곤



함을 모른 채 얘기를 나누었다. 또한 동수들은 스승님의 축복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 손님들의 질문에 막힘 없이 답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다.

축제에 참석한 많은 손님들이 스승님과 그 가르침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온 건 이 주변에서 아주 좋은 에너지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는 우리 동수들이 어떻게 이런 긍정적인 힘을 발산하는지 궁금해하며 그 모습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다.

축제가 끝나고 동수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찾아온 한 여성은 우리 관음 부스를 찾느라 수백 개의 부스를 들렀다며 결국 찾아낸 것에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연신 미소를 지으며 너무 좋다고 하면서 아쉬움에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축제가 끝나고 일주일 후, 우리는 런던 중심부의 홀변에 있는 레드 라이온 광장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열었는데, 지난 ‘심신과 영혼의 축제’를 비롯해 다른 흥법 행사에서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다.

스승님을 소개하는 비디오와 강연 비디오를 시청한 후 한 사형이 관음법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소개하자 일부 청중들은 각자 수행하면서 겪었던 흥미로운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눴으며, 일부는 남아서 방편

법을 배웠다. 동수들은 새로운 방법 수행자들이 명상을 배우는 데 관심이 높고 식습관과 습관을 바로 바꾸고자 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런던 관음 수행자들은 ‘심신과 영혼의 축제’ 동안 무상의 힘과 협력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기뻐했다. 황금시대에 걸맞은 훌륭한 시민이 되어 갈수록 스승님의 축복도 끊임없이 펼쳐지는 듯하다.



## 가장 고양되고 성공적이었던 흥법 강연회

에세 시카/ 로메

[로메] 2004년 7월 24일, 열성적인 로메 센터 동수들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정보 센터에서 가까운 로메 노동 회관에서 흥법 강연회를 개최했다.

행사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동수들은 3천 장이 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라디오 방송국 두 곳과 TV 방송국 한 곳을 통해 안내 방송을 내보냈다. 또 강연 전날에는 한 라디오 방송의 초대를 받아 심층 토론을 했으며, 방송 중에 스승님의 1993년 세계 순회 강연 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이 방송되기도 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불찬을 틀어 놓고 강연장을 스승님의 법상으로 아름답게 꾸몄다. 강연회에서는 먼저 한 사자가 나와 스승님의 가르침을 간



략히 소개한 후 이어서 스승님의 약력 소개 비디오와 스승님의 1999년 남아프리카 순회 강연 중 하나인

DVD ‘보이지 않는 길’ 이 상영되었다.

질의응답 시간 동안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설새없이 터트리면서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과 채식의 이로움에 대한 토론에 몰두하며 신실하게 많은 질문을 했다. 동수들은 영성에 대한 청중들의 지적 갈망을 충족시키고자 RTDS TV 방송국에서 다시 한 번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강연회에는 3백 명 정원을 초과한 5백여 명의 구도자들이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을 한껏 누렸다. 참석자 모두에게 신선하고 놀라운 경험을 안겨 준 이번 행사는 토고 동수들과 방문객들에게 신실한 구도자라면 스승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홍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홍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latest_news/events-datebook.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어)





## 지구의 고양을 돕는 것이 스승을 돕는 것이다

청하이 무상사/ 2002. 8. 11. 싱가포르 센터와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5

질문: 친애하는 스승님, 제가 2년 전에 입문한 후로 부모님의 건강이 호전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스승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승님께서 말없이 두 분을 축복하고 계시며 저를 항상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스승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스승님: 당신의 관심에 고맙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건 명상뿐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도우세요. 아니면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해 우리 행성의 기운이 고양되도록 돕든가요. 그러면 우리 모두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고 번영할 것이며 모든 면에서 진보할 것입니다. 또 우리와 우리 아이들, 다른 사람들의 삶이 매일 점점 더 편안해지고 신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도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돕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합니다.

## 세속적 의무를 다하며 수행하는 삶을 영위하라

청하이 무상사/ 2002. 8. 17. 헝가리 유럽 선에 참가한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6

질문: 친애하는 스승님, 예술가나 작가처럼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 종종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장애가 있습니까? 그들 대부분이 수행을 하지 않은 채, 말하자면 신의 축

복이나 사랑 없이 무언가를 창조하려고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게 그들의 입장인가요?

스승님: 모든 예술가가 장애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비정상적입니다. 그들이 예술가이건 아니건 간에요. 당신의 눈에 예술가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건 그들이 보다 유명하고 대중의 눈에 잘 띄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이웃처럼 평범한 사람이 비정상적이라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겠지요. 그들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예술가라서 더 비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점에서 보자면, 예술가들은 좀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고 창작에 몰두해 있어서 세속적인 문제들과 현실 생활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다루어야 할 때면 당황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압박이 너무나도 큰 거지요. 압박은 우리 모두에게도 크지만, 우리는 매일 세상 속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습관이 돼 있고 면역력도 더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예술가나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 좀더 집중해 있고 자신이 창조하는 아름다운 것들에 몰입합니다. 또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며 아름다움이나 음악 같은 것들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돈을 번다든가 집세를 내고 청구서를 지불하는 등의 가혹한 현실 생활에 부딪힐 때는 생경한 듯 놀라워합니다. 아마 그런 일을 잘 처리하는 법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과 꿈은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청구서를 처리하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삶과 내면의 아름다운 창조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균형을 이루는 법을 좀 배워야 하지요. 하지만 그 중에는 그 방법을 모르는 이들도 있지요.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다 감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덜 감성적이며, 어떤 이들은 내면의 꿈속에 살고 있고 어떤 이들은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그 누구든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명상을 하고 내면의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되 자신의 세속적인 의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더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센터에 있는 장주에 게조차 나는 일을 시킵니다.

명상을 하고 신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으면 그 축복을 밖으로 가져와 운용할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물질 세계와 단절될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 세계에 다시 돌아와 접촉할 때마다 혼란스러울 것이고,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 집착을 놓는 것이 죽은 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다

청하이 무상사/ 2002. 8. 4.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 센터와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6



질문: 스승님께서 아직도 제 딸아이를 보살피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 그 애를 잃었습니다.

스승님: 괜찮아요. 당신은 그 애를 잃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우리가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에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 아직도 그 애를 돌보고 계시나요 ?

스승님: 예, 그럼요. 그 애는 이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훨씬 더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쁘게 여기세요.

질문: 그냥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스승님: 누구든 이 세계를 떠나면 여러분은 축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 형제자매로서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러는 바람에 우리는 자신이 육체가 아니라는 것을 잊습니다. 예, 이해는 합니다. 나도 당신의 처지에 동정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는 기뻐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당신은 인과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1초간의 인연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분이나 한 달간의 인연이 있기도 하며, 2주, 1년, 2년, 10년, 50년 동안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우리와의 인과가 끝나고 우리와의 인연이 사라지면 그들은 가 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진짜 우리 아들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의 자녀입니다. 단지 어떤 특별한 이유로 우리에게 오는 거지요. 어떤 이는 우리에게 세상은 덧없는 것이니 어서 빨리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왔다가 일찍 가 버립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에게 재산 같은 것을 빼앗으러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빚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빚을 받으러 오는 거지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번영과 행운, 행복을 주러 오는 사람도 있는데, 전생에 우리에게 잘하지 못한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일을 마치면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이제 행복해지고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놓아 버리면 기분이 매우 홀가분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이 점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그 영혼이 가도록 풀어 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쁠 것입니다. 그것이 집착을 버린 기쁨이자 진정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있는 곳보다 더 행복한 곳에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지금 이런 상황보다 상황이 더 낫길 바라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명상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레 온다

청하이 무상사/ 2002. 8. 4.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 센터와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6

질문: 친애하는 스승님, 저는 명상할 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상을 좀 잘해 보려고 스승님의 불찬 테이프를 틀어 놓고, 스승님의 책을 읽고, 심지어 스승님의 사진들을 제 주변에 놓아두기도 하지만 여전히 힘이 듭니다. 부디 명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스승님: 연습하면 진보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돌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당신은 이제 막 입문했으니 너무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완하지 않으면 집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긴장을 풀고 앉아서 생각날 때마다 오불을 외우고 지혜안에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올 것입니다. 새 입문자들이 늘 빛을 보는 건 아닙니다. 오래된 수행자라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몸 상태가 안정되지 않아 집중할 수 없으니까요. 모두들 겪는 일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저 계속해 나가십시오. 단체명상에도 참석하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명상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초조해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자신을 압박하지도 마십시오. 때가 되면 올 테니까요. 신은 온전한 이완, 사랑, 자연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고요의 상태, 즉 삼매를 얻기 위해선 매일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하룻밤 새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입문만 하면 되고 달리 뭔가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축복받은 고통

은둔아 (원문 중국어)

2002년 크리스마스 직후, 나는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7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의식을 회복하자 온몸이 아프고 숨도 거의 못 쉴 지경이었다. 내과 의사로서 나의 상태를 보니 폐가 다치면서 내출혈이 생겼을 것이란 판단이 들었다. 보통 이런 경우엔 서둘러 가슴에 튜브를 삽입해야 하는 상태였지만 한참 지난 후에야 누군가가 와서 가슴에 튜브를 넣었다. 그나마 잘못된 위치에 삽입하는 바람에 내 오른쪽 폐는 바람 빠진 풍선 상태로 남아 있어서 나는 개처럼 숨을 헐떡거려야 했다. 또한 오른쪽 견갑골이 사고 당시의 강한 충격으로 변형되었고 갈비뼈와 오른쪽 장딴지 뼈도 부러졌으며 오른쪽 팔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다 나흘이 지난 어느 날 중국 의료단이 마침 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방문했다. 그 중 한 마취사가 내 상태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오른쪽 폐를 어서 팽창시키지 않으면 영구히 못 쓰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래서 그는 부족한 설비를 가지고 애써 나의 오른쪽 폐를 팽창시켜 주었다.

그후 온몸이 아파 침상에 누워 있는 동안, 나는 속으로 스승님께 말씀드렸다. “당신은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만약 제가 회복된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적일 것이며, 회복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또한 당신의 뜻일 것입니다. 이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것

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두 달 만에 오른쪽 팔이 기능을 회복하여 나는 혼자서 조금씩 양치질을 하고 나중에는 팔도 들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제대로 나오려면 에너지와 결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조깅도 하고 있다.

사고와 회복 과정 동안, 스승님은 내게 많은 선물을 주셨다. 우선 사고가 났을 때 의식을 잃게 해서 당시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덜어 주셨고, 죽음 자체는 고통스럽지 않지만 우리가 육체에 집착할 때 비로소 고통 받는다는 점도 일깨워 주셨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나를 보살펴 줄 의료진까지 보내 주셨다. 물론 그중 가장 큰 선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맞설 수 있었던 신념과 용기일 것이다.

한 동수는 나의 호된 시련을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난 연유에 대해 끊임없이 물으며 나 자신보다도 이 일에 호기심을 가졌다. 그는 나중에 명상하다가 그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그것은 “영혼이 이런 경험을 기록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나름의 목적이 있다. 불행하게 보이는 일에도 신의 홀륭하신 뜻이 담겨 있다. 교통사고로 나는 사물을 물질적이 아닌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의 육신은 손상을 입었지만 나의 영혼은 오히려 고양되었다!



## 감미로운 사랑의 비

오, 사랑하는 나의 구루시여!  
당신이 내게 퍼붓는 감미로운 사랑의 비  
내 가슴을 적시고 영혼을 쓰다듬으며  
사랑으로 흘러옵니다.

천국과 세속의  
내 모든 갈증 풀어 주고  
내 안에서 사랑으로 요동치며  
내 가슴을 적시고 영혼을 쓰다듬으며  
사랑으로 흘러옵니다.

세세생생 내 모든 죄를 씻고  
세세생생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내게 내면의 평화와 평온을 주며  
내 가슴을 적시고 영혼을 쓰다듬으며  
사랑으로 흘러옵니다.

나의 진정한 집과  
소중한 천국의 지위와 천국의 왕좌를 일깨우고  
내면의 천국의 기쁨을 주며  
내 가슴을 적시고 영혼을 쓰다듬으며  
사랑으로 흘러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자비  
삶의 모든 공부를 가르치며  
나의 내면을 깨어 있게 하고  
내 가슴을 적시고 영혼을 쓰다듬으며  
사랑으로 흘러옵니다.

## 사랑의 바다

당신이 내게 사랑의 눈길을 던지실 때  
내면에서 끝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물질적인 마음으로 어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언어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성스러운 감로수가 내 위에 떨어지니  
내면에서 영감이 솟아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바다에 몸 담글 때  
세속과 천국에 대한 나의 모든 갈증 채워지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어머니의 포근한 품속에 안겨 봅니다.

트리밀라 사저/ 네팔 카트만두 (원문 영어)



## 같은 행동은 같은 결과를 낳는 법

청하이 무상사/ 1996. 5. 13. 캄보디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47



두 사냥꾼이 작은 비행기를 한 대 빌려 밀림에 도착한 후 2주 후에 다시 만나기로 조종사와 약속을 했습니다. 2주가 되자 사냥꾼들은 그동안 잡은 많은 동물들을 비행기에 다 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종사가 말했지요. “이 비행기에는 물소 한 마리 이상은 싣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두고 가야 합니다.” 이 말에 사냥꾼들은 “하지만 작년 조종사는 이와 똑같은 비행기로 물소 두 마리와 다른 동물도 좀 싣었는데!” 하며 항의했습니다.

새 조종사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조금 의심스럽긴 했지만 결국 타협을 했습니다. “좋아요, 작년에 그렇게 했더니 올해도 해보죠.” 그리고선 그는 물소 두 마리와 다른 동물들을 싣고 비행기를 이륙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5분 만에 가까운 지역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은 기어 나와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다른 사냥꾼에게 물었죠. “여기가 어디인 것 같아?” 두 번째 사냥꾼은 주변을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작년에 추락한 지점에서 좌측으로 약 1마일쯤 되는 것 같은데!”



스승님의 논평

이 사냥꾼들은 똑같은 일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해가 달라졌으니 결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행동은 같은 결과를 낳는 법입니다. 의심할 것도 없어요. 전에 일어났던 일은 또 발생할 겁니다.

문제는 스승이 여러분을 너그럽게 대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똑같은 것이란 점입니다. 오계와 채식, 명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명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예외가 없지요!

## 구두쇠의 기도

청하이 무상사/ 1996. 5. 13. 캄보디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47



아주 가난한 데다 인색하기까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신에게 기도하는 태도는 성경의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마태복음 6:11)보다도 더 유명할 정도였지요.

이 늙은 구두쇠는 대략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 하느님. 전능하신 주여! 전능하신 당신의 성스러운 이름, 영원한 축복입니다. 만약 제게 10만 달러를 주신다면 그 즉시 가난한 이들에게 1만 달러를 기부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느님, 제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1만 달러를 제하시고 9만 달러만 주셔도 됩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s/153/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s/153/jk1.htm> (미국)

# 풍수(風水): 고대 중국의 과학

청하이 무상사/ 1997. 7. 5.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87

여러분은 이곳을 깨끗하게 잘 유지해야 합니다. 뭐든지 다 정리 정돈하십시오. 트레일은 다 반대쪽 낮은 곳으로 옮기고요. 왜 그래야 하는지 압니까? 우리 명상홀이 이런 쓰레기들보다 낮은 곳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압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치우면 여러분의 운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해 줬

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아! 공간이 트였군!” 하고 느낄 것이고, 명상홀에서 나왔을 때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풍수는 좋은 게 아닙니다. 쓰레기들을 머리보다 높이 두고 있으면 시야를 막아 비좁은 느낌을 주거나 벽 사이에 끼어 압박을 받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이 명상홀을 나오자마자 보이는 게 머리 너머의 화장실이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면 스스로 답답한 기운을 모으게 되고 이는 불운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편안하면 그런 기운들을 끌어 모으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활기찬 분위기와 행운, 지극히 행복한 느낌을 끌어들이거나 만들어 내게 되며, 그렇게 되면 점점 더 행복해지고 더 밝아지고 활기차고 더욱 명랑해집니다. 그러면 좋

은 운이 따르게 되지요. 그것이 이른바 ‘행운’ 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모두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옮기면 여러분의 운이 더 좋아질 것이란 말은 전혀 미신적인 게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풍수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고대의

과학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오랜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풍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수가 지나가는 곳 위에 집을 짓고 도 몰라서 얼마 지나면 집의 외벽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그럼 좋을 게 없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하에 뭔가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측량하고 살폈습니다. 어쩌다 지하에 자석과 같은 광물이 있으면 사람의 자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요. 가령 자철(磁鐵)이 지하에 있다면 여러분은 원래 왼쪽에서 왔는데 5분 후에는 바늘처럼 자석에 이끌려 반대편에서 자게 될 것입니다. (대중 웃음) 그리고 나서는 또 이런 식으로 자게 되겠죠. (스승님이 반대로 자세를 취하시다.) 이걸 좋은 풍수가 아닙니다.

풍수는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풍수를 좀 안다면 미신이 아닌란 것을 알 것입니다. 집을 이쪽으로 지으면 신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고 저쪽으로 지으면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은 이쪽에 있지도, 저쪽에 있지도 않습니다. 신은 무소부재합니다.

예를 들어 문이 남향인 게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왜 좋을까요? 남향은 빛이 많다는 것을 뜻하므로 대부분 잘 때 남쪽을 향하면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것이 풍수의 한 예입니다. 어쩌면 우연찮게 이런 것이 우주의 운행과 부합한 것일 수도 있지요. 일체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움직이면 건강해지고, 건강해질수록 더욱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질수록 행운이 더 많이 따르게 되지요.

옛날 사람들이 풍수를 더욱 강조했던 것은 기초를 단단히 할 수 있는 설비나 도구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제3의 눈이나 초능력이 열린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하에 흐르는 수맥을 보거나 영능력으로 집 밑에 나쁜 것이 있는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 공사를 할 때 그런 나쁜 것들 위에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집을 지으면 집주인에게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당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 건 필요가 없지요. 그들은 때로 그냥 자연의 힘을 중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그 집을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풍수를 믿어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옹한 풍수가를 찾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도 “홀라 홀라 합!”을 외치거나 오물을 외우거나 명상하는 풍수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중 웃음)

춥고 냉한 북풍이 계속 이 방향으로 불어오는데 여러분의 집이 이 방향으로 마주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당연히 감기를 달고 살 것입니다. 문을 열거나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올 때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겠지요. 여러분이 늘 그쪽을 향해 자거나 그쪽을 바라보고 차를 마신다면 문을 닫아도 땀속을 관통하는 외풍 같은 것이 스며들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 때는 나쁜 바람이 들어와서 온갖 안 좋은 일들을 가져오겠지요. 여러분에게 좋지 않고 여러분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바로 이런 것이 나쁜 풍수입니다.

‘풍(風)’은 바람을 뜻하고 ‘수(水)’는 물을 뜻합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바람과 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수도 같은 게 생기기 전에는 집 근처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풍수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풍수가는 간단한 도구로 물이 어디 있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영능력으로 “좋아요, 여기에 이 방향으로 집을 지으세요. 그리고 저쪽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겁니다.”라고 알려 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자신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집을 저 방향으로 짓게 됩니다.

풍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조화에 맞춰 집을 앉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게 ‘풍수’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보면 요 몇 년 동안 여러분은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주술과 풍수를 안다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 중국인 중에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역경 같은 것을 공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풍수와 온갖 구불구불한 부호들을 공부하고서도 이런 일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나는 풍수에 관해 배운 적도 없지만 이런 게 안 좋다는 건 압니다. 기분이 좋지 않고 거기서 좋은 느낌을 못 받으니까요. 저기에 있는 저 엉망인 것들을 보고 드나들 때면 압박감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못 느끼는군요. 여러분은 항상 눈을 감고 명상하면서 나머지 일들을 모두 스승에게 미뤄 버리지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주방을 청소하고 화도 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저런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담쟁이덩굴 같은 것을 심는 게 좋겠습니다. 콩처럼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울타리를 덮거나 울타리 높이를 가지런히 맞추거나 하면 됩니다. 아니면 안이 들여다보이는 울타리를 바꾸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싫다면 녹색이나 주변과 잘 어울리는 색으로 칠해도 좋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거나 대조적인 색깔은 눈에 거슬리니까요. 예술적인 안목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화로운 미관에 거슬리는 것은 무엇이든 좋은 풍수가 아닌 것입니다.



# 동물의

## 훌륭한 품성을 인정하라



정하이 무상사/ 2001. 6. 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14

개는 누구에게나 인사를 건넵니다. 아주 아름답지요! 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누구에게 사랑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를테면 병원이나 가정에서 노인이나 아픈 어린이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개를 키우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누구든 개가 발을 올려놓고 핥아 주면 사랑을 받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동물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을 다시는 못 본다 해도 모든 것을 내줍니다. 개는 좋아하는 사람이면 핥아 줍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는 상황을 잘 이해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접촉을 합니다. 가정이나 병원을 방문하는 이런 개들은 전문적인 훈련

을 받은 상태라서 규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인이나 어린이, 말기 환자들을 방문해 즐겁게 해주며, 환자들은 이런 동물들을 아주 좋아해서 계속 와 주길 바랍니다. 개에게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도 아무도 믿어 주지 않는 데 말이죠. 그건 아마도 진심에서 우러난 말이 아니기 때문이겠지요!

개는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개의 속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당에 사람이 개의 마음을 이해하기란 더더욱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 후에

“이 개는 쓸모 없어.”라며 내다버립니다. 동물 보호소에  
는 죽음을 기다리는 개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은 사람  
들이 입양하지 않으면 하루나 일주일 안에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죽이려고만 합니다.  
사람들은 개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합니다. 그러면 개는 얼마 후에 제멋대로가 됩니다.  
잘 훈련시키지 않아서 개들이 가구나 기타 등등을 씹  
어 버리면 주인은 진저리를 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 개에게도 장난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또 개  
에게는 친구도 필요하고 주인과 놀 시간도 필요합니  
다. 먹고 집만 지키는 게 아니지요. 집 지키는 개에게  
도 다른 사람들처럼 애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외로운 개나 고양이를 기르면 그들은  
여러분을 동반자나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여려  
분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아주 많이 집착하기도 합  
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반자로서 그의 감정적인 요  
구를 배려하지 않으면 개는 당연히 공격적이 되거나  
침울해져 점점 더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  
리는 버릇이 없다고 개를 나무라지요.

하루 종일 햇볕 아래 묶인 채 아무데도 못 가고 아  
무것도 못 하는데, 어떻게 개가 착해지겠습니까? 같이  
있어 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밥만 얻어  
먹는데 말이에요. 사람도 먹기 위해서만 살지는 않습  
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또 하  
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으며, 우울함이나 외로움  
을 해소시킬 방법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롭고 쓸쓸하다며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선택권이 많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무에 묶여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하루 종일 우리에게 갇혀 있  
거나 여러분이 밤에 귀가할 때까지 18시간 동안을 기  
다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고작 집에 와서 개  
에게 음식을 줌 주고 머리를 쓰다듬고선 “착하네.” 하  
고는 자리 가 버립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장난감이나 애완동물로 생각합니다. 하

지만 사실 동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동물은 놀라운  
존재로서 우리에게 없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  
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동  
물을 학대합니다.

성경에서 신은 “나는 동물을 너희의 조력자로서  
창조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이 우리의 친  
구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을 먹거나 학  
대해선 안 됩니다. 신이 동물을 창조하신 뜻은 사람을  
돕기 위함이었으니까요. 동물은 양치기 개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돕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문적  
인 훈련을 시켜야 하지요. 양치기 개라 해도 양떼를  
모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개  
를 사냥이나 살상 등 좋지 않은 목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사람들이 개를 바깥에 두고 잘 돌보지 않는다면  
개는 벼룩이나 진드기가 들끓어 아주 괴롭게 됩니다. 그  
러나 말을 할 수 없고 스스로 돌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인에게 의지해야만 하지요. 게다가 너무나  
도 충성스러운 탓에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도 않습니다. 그러니 유일한 보호자인 우리가 이들을 소  
홀히 대한다면 그건 너무 잔인한 짓입니다. 인간의 도  
리가 아니지요. 정말 동물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르지 않  
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기르고 있다면 잘 대  
해 주십시오. 일이 많긴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  
습니다. 동물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상황  
에 따라서는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던지기도 할 테니  
까요.

나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동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물을 사랑하지만 그것  
과는 별개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들을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방치  
하거나 소중하게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무지  
한 것입니다. 그들은 개에 대해, 이 놀라운 존재의 내  
적 품성에 대해 알지 못한 채 그저 동물로만 여깁니  
다. 우리보다 작다고 무시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  
은 옳지 않습니다.





## 참된 염불 법문

루안리위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원문 중국어)

이 이야기는 스승님이 한동안 포모사 신디엔에 머무셨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사저의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고 있었다. 그는 몹시 두려운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는데, 의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눈을 감길 수 없었다. 안면 근육도 고통으로 뒤틀려 있었고 한쪽 팔을 끊임없이 올렸다 내렸다 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저는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그 동작을 계속 반복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던 사저는 신디엔에 계신 스승님을 찾아와 아버지를 구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녀의 효심에 감동하신 스승님은 그 사저에게 부처의 이름을 하나 알려 주면서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셨다.

당시 사저의 아버지는 정신이 혼미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저는 아버지의 귀에 대고 그 명호를 일러주고는 말했다. “아버지, 만약 이 명호를 외우고 계시면 제 손을 한번 꼭 쥐어 주세요.”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는 염불을 하고 있다는 표시로 손을 쥐어 주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 즉시 그의 뒤틀렸던 얼굴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갑자기 살이 찌 것처럼 둥글고 환해진 것이다. 이어서 그는 위아래로 움직이던 동작도 멈추고 두려움에 떨던 눈도 감은 채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사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신디엔으로 찾아와 스승님께 감사를 드렸다.

사저에게서 임종 시 괴로운 모습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스승님은 “당시 당신의 아버지는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사저는 매우 의심스러운 듯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법을 잘 지키고 매우 청렴한 공무원이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나는 그녀의 반문을 듣고 즉시 물었다. “고기를 드셨지요?” 이 말에 사저는 매우 당황하며 할 말을 잃었다. 자비로운 스승님은 즉시 긴장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며 말씀하셨다. “됐어요! 안 그래도 그녀는 이미 큰 슬픔에 빠져 있으니 더 이상 기분을 상하게 해선 안 됩니다.”

며칠 전 스승님의 강연 DVD인 ‘스승님의 화신’을 보는데, 한 동수가 스승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왔다. “저는 전에 염불 법문을 수행했는데, 2시간 반 동안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 외에 다른 시간에는 염불을 계속해도 됩니까?” 내가 위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깨달음이 부족한 이 질문에 몹시 화가 나서 다른 동수들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염불 법문인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산토:

## 나의 충실한 친구이자 스승

“나를 아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말할 수 있다면 치와와가 할 법한 표어

리처드 스투어트 사형/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나는 2003년 여름에 스승님의 ‘개는 놀라운 존재이다’ (비디오테이프 No. 714) 강연을 본 후 생기발랄한 황금색 치와와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다. 강아지의 기질이 상냥하고 사랑스러워서 나는 그에게 ‘산토(스페인어로 성자라는 뜻)’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나는 TV나 영화에서 치와와를 볼 때마다 그 활기차고 독립적인 개성과 영리한 지능에 매력을 느끼곤 했었다. “커다란 눈과 큰 귀, 당당한 태도를 지닌 이 자그마한 애완견은 자기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 한 치와와 애호가들의 말대로 말이다. 이러한 기질들은 수행자들이 추구하는 품성과 매우 유사하며, 내가 멕시코 산의 이 자그마한 개를 오랫동안 사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스승님의 말씀이 치와와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고 할 수 있다.

스승님은 강연에서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작은 치와와의 놀라운 헌신과 용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치와와가 얼마만한지 아나요? 쥐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충성스럽고 용맹스럽게 주인을 지킵니다. 한 치와와는 주인을 구하다 죽어서 영웅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도가 돈을

훔치러 들어왔을 때 치와와가 큰 소리로 짖어대며 달려들어 강도를 공격하자 강도가 개의 목을 자르는 바람에 죽고 말았지요. 하지만 치와와가 크게 짖으며 강도를 공격했기 때문에 깨어난 주인들은 죽음과 강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개는 주인들을 위해 죽었지만요, 것처럼 작은데도 대단히 충성스럽고 보호 본능이 뛰어나지요.”

이러한 대단한 헌신과 보호 본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길고도 독특한 치와와의 역사와 유전적 혈통에 따른 것이다. 스승님은 충성심이나 용기 같은 행동과 기질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생물 세포의 일부분으로 바뀌어 대대로 전해진다고 하셨다. 치와와의 경우, 이러한 유전적 배경은 마야(B.C. 2000~A.D. 900), 톨텍(A.D. 700~1200), 아즈텍(대략 A.D. 1200~1500) 등 멕시코의 3대 아메리카 인디안 문명에서도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문명들은 지금의 치와와\*의 조상인 황금색 또는 모랫빛을 띤 작은 ‘테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멕시코의 전설에 따르면, 테치치는 죽은 뒤 저승의 무서운 지역을 통과하도록 주인을 인도하고 주인의 죄를 떠맡음으로써 주인이 천국의 이상적인 곳에 갈 수 있도록 신을 달랜다고 한다. 치와와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고대 멕시코인들이 작지만 충성스러운 테치치(치와와의 조상)가 죽은 후에도 가장 사랑했던 인간의 도착을 충성스럽게 기다렸다가 주인의 업을 떠맡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믿었던 그 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테치치의 또 다른 놀라운 점 하나는 대부분이 채식을 하며 옥수수와 다른 야채가 듬뿍 든 음식을 좋아한다는 점이다. 산토와 그의 치와와 친구인 미키와 티니가 우리 뜰에서 매일 풀을 뜯어먹기를 좋아하는 것은 조상인 테치치에게서 물려받은 기억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공부

우리 산토는 내가 깨어나거나 직장에서 돌아올 때 등 아무 때나 나를 사랑스럽게 훑아 대며 선조인 테치치의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 준다. 우리 집에 온 이후 산토는 집과 마당 등 어디든 나를 따라다니며,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사납게 짖으면서 나를 ‘보호하러’ 한다. 자기가 조그맣다는 건 까맣게 잊은 채 덩치 큰 복싱 선수나 독일 셰퍼드처럼 늠름한 자세를 취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산토는 옆집에 사는 같은 치와와 친구인 미키와 티니에게 늘 친절하고 자상하다. 찻잔만한 크기의 귀여운 티니와 함께 놀 때는 티니의 연약함을 생각해 물거나 뺨 때 다치지 않도록 장난을 적절히 조절한다. 산토는 또 우리 집주인이 키우는 병아리들의 얼굴을 훑아 줌으로써 애정 표현을 하기도 한다. (물론 산토는 지극히 정상적인 개라서 재미 삼아 마당 주위에서 놀고 있는 큰 닭들을 쫓아다니는 걸 좋아하긴 한다.) 나아가 산토는 가진 건 뭐든지 강아지 친구에게 기꺼이 나눠 줌으로써 사랑과 초연함을 보여 준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의 밥이나 물, 장난감을 맘대로 해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는다.

작고 황금빛이 나는 나의 친구이자 스승인 산토가

보여 주는 애정과 관심, 지극한 헌신의 모습은 내게 보다 훌륭한 인간이 되고 스승님의 보다 훌륭한 제자가 되는 방법을 매일 가르친다. 스승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는 놀라운 존재이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기 희생적인 놀라운 능력은 우리 모두를 일깨우고 고양시킬 수 있다. “그들은 매우 충성스럽고 보호 의식이 강합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치와와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치와와는 경비견이 아니라 애완견입니다. 주머니에 넣어 데리고 다닐 수 있어서 ‘주머니 개’라고 불리기도 하며, 하루 24시간 내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걸 좋아하고 정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이 위급할 때면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이런 점들은 나를 너무나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동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사랑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치와와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thedogplace.com/Reference/Chihuahua/history.htm>

<http://www.barkbytes.com/history/chihua.htm>



# 기적의 개와 동물에 대한 사랑을 보여 준 인정 많은 소녀

로스앤젤레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인류가 황금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동물 안락사와 관련한 두 가지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 생명의 평등함이라는 소중한 교훈들을 전해 준다. 그 중 하나는 가스실에서 죽음을 이겨 낸 ‘기적의 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떠돌이 애완동물을 일찍 죽이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아버지의 마음을 바꾼 소녀의 이야기다.



## 죽기를 거부한 개

2003년 8월 7일, 미국 미주리 주의 세인트루이스 시립 동물 보호소에 있던 다른 떠돌이 개들과 함께 가스실로 보내져 안락사를 당하게 된 한 살 된 바센지 잡종 개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듯했다. 그러나 이 어린 개는 운명에 저항했다. 가스실 문이 열렸을 때, 보호소 사람들이 ‘쿠엔틴’이라고 이름 지은 이 개는 생생한 모습으로 꼬리를 흔들고 혀를 내민 채 살아 있었던 것이다!

로즈마리 피컨 보호소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동물 보호소를 관리한 이후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경우는 여태껏 없었기에 그녀는 그 문을 차마 다시 닫을 수 없었다. 운명과 싸워 이긴 이 30파운드의 동물은 계속 살아야 한다고 확신한 피컨 여사는 세인트루이스 떠돌이 개 구조 협회의 랜디 그림 소장에게 알렸다. “제발 저 개를 데려가세요. 나는 그를 다시 가스실로 집어넣고 싶지 않아요.” 떠돌이 동물 구조 협회에서는 쿠엔틴을 데려와 방송국과 연락을 취했다. 곧 이어 미국 각지의 TV 방송국에서 쿠엔틴의 이야기를 방영했고, 이 개를 입양하려는 문의가 보호소에 쇠

도했다.

쿠엔틴은 쓰라린 경험을 겪은 후 약간 영양실조에 걸린 듯했지만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었다. 그림 씨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면 신의 축복입니다. 쿠엔틴은 고귀한 목적을 전해 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나한테 큰 충격이자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쿠엔틴이 살아남은 고귀한 목적은 아마도 인간이 동물 친구들을 경솔하고 몰인정하게 다룬다는 점과 더불어 만물에 깃든 신성(神性)은 동물을 질식사시키려는 인간의 그 어떤 교묘한 수법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인류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은 뒤 많은 사람들이 떠돌이 동물들을 죽이는 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이며, 우리와 똑같은 감각과 감정을 가진 동물 왕국의 친구들을 더욱 자비롭게 대하리란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쿠엔틴이 보여 준 놀랄 만한 회복력은 환경의 영향을 초월해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뜻 깊은 교훈을 준다. 사람들은 순진하고 무력한 생명을 끝장내려고 시도했지만 그는 살고자 인간힘을 썼고, 즐겁고 정





이 많고 너그러운 마음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생명의 위협과 고통에 직면할 때면 동물 형제 자매들을 모범으로 삼으라고 하는 듯하다. “우리는 동물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항상 현재를 삽니다.”라고 하신 청하이 무상사의 말씀처럼 말이다.



## 무수한 동물의 생명을 건진 소녀

또 다른 이야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동물 구조에 얽힌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최근 이곳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부분적으로는 십대 딸의 시기 적절한 중재 노력으로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을 조기에 안락사시키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다.

2004년 6월, 캘리포니아의 떠돌이 애완동물은 주 예산 삭감에 따른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였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행정부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동물 보호소에 있는 떠돌이 애완동물을 일찍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표방했기 때문이다. 현재의 법안에는 보호소에 수용된 개나 고양이는 6일이 지나야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72시간 만에 가능하게 되며 새, 돼지, 뱀, 그리고 기타 애완동물은 보호소에 수용되자마자 즉시 죽일 수 있다.

이 계획안을 접하고 충격에 휩싸인 동물 보호 운동가들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개들을 데리고 새크라멘토 주의회 의사당에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즐거운 개들은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인 드라마는 전혀 모른 채 주인의 요구에 따라 의사당 계단 근처에 얹혀 앉아 있었다. 한편 그 사이 캘리포니아 애완 돼지 협회와 기타 동물 옹호론자들도 공무원들과 계속 교섭을 벌였다. 결국 주의 최고 권력자는 법안 개정을 중단하고 원래의 인도적인 동물 관리 법안을 회복시켰다.

아놀드 주지사는 6월 25일 긴급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어젯밤 나는 내가 한 가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떠돌이 동물에게 6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한 원래 법안을 복원시켰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동물 보호 단체들만 그를 비난했던 건 아닌 것 같다. 주지사의 10대 딸 역시 그를 원망했다고 한다.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는 슈워제네거는 예산 협상 중 휴식 시간에 모든 것이 실수였음을 인정했다. 슈워제네거 당선 직후 재빠르게 짜여진 1월 예산에 보호소 동물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법안이 실수로 추가되었던 것이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꿨을까? 대중의 압력? 아니면 어릴 적 오스트리아에서 키웠던 애완 돼지의 추억? 그의 대답은 지극히 간단했다. “딸 아이의 부탁이었습니다.”

기적의 개 쿠엔틴의 경우처럼 이 이야기도 인류에게 동물 형제자매들에게 더 큰 자비와 관심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황금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사람들에게 말이다. 지구의 가장 순수하고 겸손한 거주민인 동물과 어린이, 청소년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이런 값진 교훈을 배우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strayrescue.org/quentin.html>

(기적의 개 쿠엔틴)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articles/A6668-2004Jun25.html>(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심경 변화)



## 주인의 생명을 구한 캥거루, 상을 받다

(원문 영어)



애완견 버스트와 애완 캥거루 룰루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농부 레오나드 리처드 씨.

[호주 캔버라] 2003년 9월 22일, 52세의 농부인 레오나드 리처드 씨는 멜버른에서 동쪽으로 150킬로미터 떨어진 탄질 사우스의 농장에서 태풍 피해를 점검하던 중 부러진 나뭇가지에 맞아 정신을 잃었다. 이에 옆에 있던 애완 캥거루 룰루는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결국 이 소리에 리처드 씨의 아내가 집에서 200미터가량 떨어진 나무 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편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때 룰루가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리처드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경미한 머리 부상을 치료받았다. 만약 룰루가 때맞춰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리처드 씨의 부상은 악화됐거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리처드 씨는 4년 전 룰루가 차 사고로 어미를 잃자 어미의 주머니에서 구조해 우유를 먹이며 키웠다.

2004년 5월 19일 호주 왕실 동물 학대 방지 협회(RSPCA)에서는 공식 행사를 통해 룰루의 영웅적인 공적을 표창하는 의미에서 '용감한 동물 상'을 수여했으며, 리처드 씨가 룰루를 대신해 이 상을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룰루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luluthekangaroo.com.au>



## 토론토인의 가슴을 사로잡은 단테

-영리한 개가 총기 살상을 막다

(원문 영어)

[토론토] “2003년 6월 23일, 정신이 이상한 뉴브런스윅의 43세 된 실직자가 확실히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총기 난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탄약 6,296발, 소총 두 대



와 엽총, 반자동 권총, 리볼버, 공기 소총 각 한 대를 차에 싣고 몸에 별채 칼, 사냥 칼, 던지기 전용 칼 각 한 자루와 변장용 마스크, 그물을 소지했다.”고 토론토 경찰이 밝혔다.

이 남자가 토론토 빅토리아 파크 에버뉴와 퀸스트리트 부근의 공원에 도착해 일을 벌이려 할 때, “마침 한 행인이 개들을 산책시키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그에게 다가와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닉 애슬리 형사가 설명했다. “(총기를 소지한 그 남자는) 마침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 지역에 착한 개가 있다면 주민들도 분명히 선량하리라고 생각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 그리고는 차를 몰고 자수하기 위해 경찰관을 찾아다녔지요.”

경찰 측은 이 영웅적인 개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2백여 명을 정밀 조사한 결과 드디어 7월 29일 토론토를 구한 놀라운 개가 시베리안 허스키와 호주 셰퍼드의 혼혈개인 ‘단테’라는 것을 확인했다.

“단테는 남을 잘 이해합니다.” 개 주인인 크리스티나 카이저 씨의 말이다. “우리 아이가 울면 그도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가 제일 먼저 그 동물 애호가를 감지한 건 놀랄 게 못 됩니다. 마음이 좀 혼란스런 애호가이긴 했지만요.”

캐나다 인도 협회의 마이클 오설리번 이사는 8월 초에 단테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주소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globeandmail.com/servlet/ArticleNews/TPStory/LAC/20040624/TSHOOTER24/National/Idx>

[http://www.pulse24.com/News/Top\\_Story/20040729-018/page.asp](http://www.pulse24.com/News/Top_Story/20040729-018/page.asp)

[http://www.ctv.ca/servlet/ArticleNews/story/CTVNews/1088080916471\\_69/?hub=Canada](http://www.ctv.ca/servlet/ArticleNews/story/CTVNews/1088080916471_69/?hub=Canada)

[http://nb.cbc.ca/regional/servlet/View?filename=nb\\_stansonfit20040730](http://nb.cbc.ca/regional/servlet/View?filename=nb_stansonfit20040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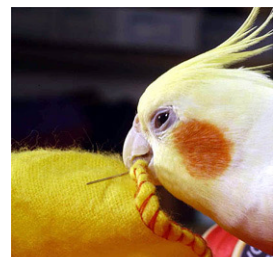
[http://www.thestar.com/NASApp/cs/ContentServer?pagename=thestar/Layout/Article\\_Type1&c=Article&cid=1091052613661&call\\_pageid=968350130169](http://www.thestar.com/NASApp/cs/ContentServer?pagename=thestar/Layout/Article_Type1&c=Article&cid=1091052613661&call_pageid=968350130169)



## 바느질하는 총명한 앵무새

(원문 영어)

[영국 브리스틀] 호주산 애완용 앵무새는 지저귀는 소리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주인이 양복점에서 바느질하는



이 똑똑한 새는 바늘을 물고 옷감에 바느질을 할 수 있다.





아홉 살 된 바기오는 주인인 잭 테리토 씨를 보고 바느질하는 요령을 배웠다.

모습을 수년간 보아 온 ‘바기오’라는 앵무새는 바늘에 실을 꿰매어 바느질을 할 수 있다. “비교가 안 되죠. 다른 동물들은 잔재주를 피우지만, 이 새는 바느질을 할 수 있으니까요.” 새 주인인 잭 테리토 씨의 평이다.

60세의 테리토 씨는 브리스틀의 파크 스트리트에서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바기오의 바느질 솜씨는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하죠.”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www.thisisbristol.com/displayNode.jsp?nodeId=127638&command=displayContent&sourceNode=127637&contentPK=9812935>

[http://www.ananova.com/news/story/sm\\_942846.html?menu=news.quirkies.animaltales](http://www.ananova.com/news/story/sm_942846.html?menu=news.quirkies.animaltales)

## 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EC751 <월문 중국어, 영어>

불퇴보살

2003. 2. 23. 포모사 시후 장주들과의 화상회의

**내용 요약:** 이 강연에서 스승님은 ‘겸손’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신다. 겸손은 여러 상황에서 도움이 되며 수행자를 보다 높은 경지로 인도하는 승차권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경지를 넘어야 진실로 안전하고 퇴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스승님은 또한 청결한 환경이 수행의 진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죽은 후 각자의 높고 낮은 수행 수준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완전히 경험하게 되므로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수행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 CD를 통해 여러분은 관음 수행자들이 이룬 수행의 성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스승님이 이 특별한 모임에서 ‘성인(聖人) 발표’를 하시고 황금시대가 이 세상에 가져올 감동과 행복, 기쁨에 대해 예견하셨기 때문이다.



# 스승님의 무한한 빛으로 기쁘게 가다

중국 상하이 동수 (원문 중국어)

경애하는 칭하이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다. 스승님의 자비와 사랑이 줄곧 나와 함께하셨으니 말이다. 1993년 5월 23일 입문한 후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후 매일 스승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었다. 다음의 이야기는 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스승님께서 남편의 해탈을 도와 주신 이야기들이다. 모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그저 열심히 명상하고 스승님께 헌신하는 길뿐이리라.

1994년 어느 날, 남편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 훌륭하신 스승님과 수행 법문을 따르는데, 나도 진작에 당신네 단체에 가입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그는 그때부터 입문하길 갈망했다. 그 무렵 그는 회사에서 받은 건강 검진에서 ‘간경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미 때가 너무 늦어 죽는 날만 기다릴 뿐이었다. 남편의 배는 순식간에 풍선처럼 부풀었는데, 이상한 것은 아무 통증도 못 느끼고 곧 죽을 사람치고는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문을 바라는 갈망도 여전했다.

한번은 내가 집에서 몇 십 리 떨어진 곳으로 단체 명상을 가려 하자, 남편이 자전거로 데려다 주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렸다. 나는 그의 상태가 걱정돼서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남편은 부푼 배를 하고서도 나를 설득했다. “당신은 단체명상에 참석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나는 입문도 못 해서 참여할 자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단체명상을 하는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길라도 하게 허락해 줘.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쁘겠어! 언젠가는 나도 단체명상에 참석해야지!”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남편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다음번에는 나도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네.” 그리고는 매우 즐거운 모습으로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스승님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그의 상태로는 자전거로 날 데려다 주기는커녕 진작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1994년 10월 남편은 드디어 입문 통지를 받았다. 그는 내가 챙겨 준 약과 음식을 가지고 혼자 기차를 타고 다른 지방으로 입문을 받으러 떠났다. 입문식에서 돌아온 그는 법희로 충만해서 말했다. “스승님이 잘 돌봐 주셔서 약도 필요 없었고 배도 고프지 않았어. 아주 가벼워서 발이 없는 것처럼 거의 날아서 왔다니까.” 그로부터 얼마 후 부풀었던 배가 줄어들어 전혀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았다. 남편의 놀라운 변화를 본 나는 큰 감동에 빠졌다! 남편은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매일 집에서 신실하게 명상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1998년 어느 날, 남편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다니, 우린 정말 운이 좋아. 안 그랬으면 나 같은 사람은 사는 데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야! 우리 아들이 어려서 공부를 가르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지금은 온 가족이 당신한테만 의지하는군. 당신한테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만 되니 나는 스승님을 따라가야 할까 봐. 당신은 아들이랑 계속 살고, 스승님이 두 사람을 돌봐 주시겠지.” 이 말은 그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이란 예고였다.

남편은 죽기 열흘 전부터 병세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옛새가 지나자 상태가 위급해졌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동수 세 사람에게 연락해 그를 위해 함께 하룻밤 새 꼬박 명상을 했다. 날이 밝자 그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상의를 좀 한 후 병원에 연락해 응급차를 불렀다. 응급차에 태워 출발하기 전, 남편은 고개를 들며 소리쳤다. “봐! 정말 밝다! 당신들은 안 보여?”

그는 병원으로 가는 동안 내내 이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후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병실의 다른 쪽 사람들은 추위 때문에 두꺼운 솜옷을 입어야 했는데, 그에 비해 남편이 있는 쪽은 땀 세상인 양 아주 따뜻하고 아늑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스승님의 무량한 빛은 수천 개의 태양보다도

밝아. 왜 당신들에게는 보이지 않지?” 바로 그 순간 스승님의 무한한 힘이 매우 강렬하게 나타나 그 무한한 빛이 모든 이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편안하다고 얘기했으며, 많은 이들이 티셔츠나 얇은 옷만 걸치고 있거나 심지어 뽀얀 옷을 다 벗는 사람까지 있었다.

이어서 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스승님의 축복 속에 남편이 있던 병실의 모든 중환자들이 병마에서 벗어나 퇴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모두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 남편이 죽기 전 사흘 동안에는 테이프보다 수십 배나 아름답고 장엄한 불찬이 병실에 가득 울려 퍼졌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있던 동수들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이런 신기한 감응들을 통해 나는 스승님을 그리워하고 서방정토를 갈망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나중에 남편은 어서 꽃을 좀 사 오라고 부탁했다. “당신은 평소 아주 검소해서 꽃 같은 건 산 적이 없었는데, 웬일이예요? 게다가 지금은 설 때라서 꽃이 아

주 비싸다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스승님이 한시도 떠나지 않고 내 곁을 24시간 내내 지키시면서 내게 빛을 비추고 계셔. 그러니 어서 스승님께 공양드릴 꽃을 사 와. 아무리 비싸도 상관없어!”라고 얘기했다. 한 사저가 나 대신 꽃을 사 오자 나는 남편에게 스승님이 오셨는지 물었다. 남편은 자신이 본 이미지가 너무도 사실적이어서 마치 육신 스승님이 그 곁에 오신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스승님이 “당신은 빛과 소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당신에겐 둘 다 있습니다.”라고 알려 주시기가까지 했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난 입문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이제야 명상 중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빛과 소리였다는 걸 알겠어!” 그후 1998년 정월 초여드레, 남편은 사저가 사 온 꽃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화신 스승님을 따라 세상을 떠났다.

스승님의 넓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일체 중생들이 조만간 깨달음을 얻어 스승님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

## 깨달음과 논리는 공존할 수 있다

청하이 무상사/ 2002. 8. 11. 싱가포르 센터와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5

질문: 우리의 정신 훈련은 이성에 기초하지만 깨달음을 얻는 것은 꼭 이성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높은 수준의 깨달음을 유지하려면 사고의 논리적인 측면을 억눌러야 합니까?

스승님: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논리적인 생각이 실제로 논리적인지, 당신의 이성적인 생각이 실제로 이성적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체가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사물을 진실로 이성적으로 봅니다.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생각을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좀더 이성적으로, 좀더 논리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진정으로 논리적이고, 진정으로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정하이 무상사/ 1990. 6. 13. 포모사 타오위안  
(원문 중국어)

## 공주의 물방울 목걸이

옛날에 한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전에 살면서 온갖 진주와 루비, 보석을 갖고 있었어요. 또 외동딸이라서 국왕과 왕비가 그 응석을 다 받아 줬기 때문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발코니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빗방울이 호수에 떨어지면서 만들어 낸 무수히 많은 물방울이 햇빛에 비쳐 오색찬란한 색으로 반짝거렸습니다. 이 광경에 매혹된 공주가 왕에게 말했죠. “저 물방울로 만들어진 목걸이를 갖고 싶어요!” “그건 안 돼! 진주를 원하면 더 큰 것을 줄게. 어떠냐?” 그러자 공주는 “싫어요, 싫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갖고 싶다면 그건 아주 많이 줄 수 있단다.” 왕이 또 달랬지만 공주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버릇없는 아이는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왕은 어찌할 바를 몰라 신하들을 소집했지만 신하들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물방울만 고집하는 공주의 요구를 누구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공주는 시끄럽게 울면서 소란을 피우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엔 여위기 시작하더니 결국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머

리를 싸맷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의사도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없었고요. 최후의 수단으로 왕은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하고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방법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왕이 노인을 공주에게 데려가자 노인은 공주에게 소원대로 물방울 목걸이를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주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팔짝팔짝 뛰었고, 병도 이내 나았습니다. 이윽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이니 어떤 물방울이 더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공주님께서 직접 예쁜 물방울을 골라 주시면 제가 꺾어서 목걸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인과 이 말에 현혹된 아이, 두 사람은 함께 호수로 갔습니다. 공주는 손으로 물방울을 잡으려 했지만 아무리 해도 허탕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공녀들은 감히 큰 소리로 웃지는 못하고 몰래 킁킁웃었습니다. 당황한 공주는 왕에게 말했습니다. “아바마, 전 이제 물방울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냥 진주와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돼요. 전 이 물방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왕은 사랑스러운 딸을 바라보

며 얘기했어요. “그래! 이건 그냥 물방울일 뿐이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궁전으로 돌아왔고 공주의 병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같은 이치로 보자면, 우리가 생사가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앞에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진짜 물이 아니라 빛의 굴절입니다. 또한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과 말, 혹은 수많은 궁전을 보거나 깊은 바다에서 소리를 듣거나 궁전이나 인어를 보고선 그것을 진짜로 여길 때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환영에 불과합니다. 공간이 너무 넓어서 헛것을 보는 거지요.

때로는 햇빛이 길을 비출 때 연기가 올라와 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도 어릴 때 이런 현상에 속은 적이 있습니다. 걸어서 학교에 가다가 앞에 물이 보여서 빨리 가 봤지만 거기엔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면 또 물이 보여서 다시 달려가 봤지만 역시나 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것이 신기루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세생생 윤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붙잡으려 하고 이쪽저쪽에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나지 않은 채 이러한 것들이 환상일 뿐이란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우리를 깨울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 영혼이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한다면 영혼은 깨어날 것입니다.

골라 뽑은 수행문답 

## 긍정과 부정의 이원성을 초월하라

정하이 무상사/ 2002. 8. 11. 싱가포르 센터와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5

질문: 우리는 실생활에서 소위 선과 악이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의식 수준에 연관된 환영인가요? 그렇다면 이른바 선악이라는 것은 실재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을 만드는 건가요? 만약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스승님: 네, 더 이상 만들지 말고 영화나 비디오를 보듯 세상을 무상한 것으로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오불과 지혜안에 집중하고 스승들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세상의 선악을 보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지만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에 불과하니까요. 어떤 습관이든 바꾸려면 몇 주가 걸립니다. 만약 3주 동안 노력한다면 긍정과 부정, 인간 세계의 이원성을 주시하든 습관을 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성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다음번에는 선이든 악이든 무시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100번 해서 100번 다 성공할 수 없겠지만 언젠든 가능할 때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 실수를 통한 배움이 영적 성장을 돕는다

미국 오하이오 뉴스그룹 (원문 영어)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업장은 전염될 수 있으며 깨달음도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최**근 진행된 실수의 과정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는 우리가 자신의 실수에서뿐 아니라 타인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네덜란드의 니즈메겐 대학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 하인 반쉬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16명의 지원자들에게 특정한 컴퓨터 업무를 완수하도록 지시하고 그와 동시에 다른 지원자들의 업무 완수 과정을 관찰하도록 했다.

실수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지원자들 두뇌의 특정 부분에서는 자신이 실수했음을 자각하는 전자 신호가 나타났다. 놀라운 점은 다른 지원자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던 지원자들의 두뇌에서도 이와 똑같은 전자 신호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을 감시하는 데 있어 같은 신경계가 관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 평론에선 “운전할 때 갈림길을 놓치면 짜증나는데, 이는 뒷자석에서 운전자가 실수하는 모습을 꼼짝없이 지켜봐야 하는 승객에게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왜 다른 이가 실수하는 것을 보면 짜증이 나는가? 아마도 이것은 자신이 실수할 때 영향 받는 뇌의 부위가 같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의 실수에 자신이 괴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수는 우리에게 화만 일으키는 대신 배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실수가 ‘선생’이 되려면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할까? 아마도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갖거나 실수의 경험에서 배우려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러한 개방적인 태도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겸손함이 함께 뒤따라야 한다. 우리가 너무 오만하다면 어떻게 자신의 태도에서 이모저모가 개선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겸손함을 자아 비판이나 죄의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겸손함은 성장을 위한 진정한 기회를 낳는 반면 자아 비판은 스스로를 끌어내리니까 말이다. 스승님의 말씀과 행동을 예로 들자면, 스승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대하면서 위대한 사랑과 겸손함을 보여 주시지만 우리에게 결코 자아 비판에 빠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구도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 스승님은 가능한 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그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부각시키신다. 스승님은 우리가 신성한 진야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공포와 의심을 돌파해 나아가 보다 고양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런 점에 대해 스승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다. “우리가 고통 받는 것은 우리가 한 실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실수를 하는 ‘나’와 우리의 진야는 같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실수를 저지르는 인간적인 특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 전진하는 것이 낫다.

아마도 이 점에서 보면 우리 주위에서 생기는 실수가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보다 나아지려 한다면, 타인의 실수투성이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이 영적 성장의 강력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사실 스승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이런 주제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에 나오는 ‘원숭이 스님’이다. 이 짧은 이야기는 다른 스님을 원숭이라고 놀린 스님에 대한 얘기인데, 놀림을 당한 ‘원숭이 스님’이 실제로는 높은 성인의 지위에 이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인을 비웃은 과보로 평범한 그 스님은 500생 동안 원숭이로 태어나야 했다.

스승님의 가르침 속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경각심을 가지라는 많은 일화들이 담겨 있다. 스승님은 더 나아가 “내면의 지혜를 사용해 레몬에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내라.”고 강조하신다. 그 말씀은 타인의 실수를 자신의 긍정적인 배움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우선은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실제로는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겉으로 부당하

다고 보이는 대우가 전생의 업장의 결과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과거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했기에 그러한 느낌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응보를 겪어야만 하고 또 이렇으로써 타인의 감정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어떤 종류의 실수든 이는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어 관성적인 반응을 깨트리고 나아가선 우리의 진아를 더 빨리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에서 보이듯이 만일 우리 두뇌가 자신이나 타인의 실수를 깨달을 때 전기 신호를 만들어 낸다면, 그 관건이 되는 말은 ‘깨닫는다’라는 것이다. 실수를 깨닫는 것은 신을 깨닫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것을 발견했을 때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심을 다해 한 걸음씩 내딛을 때마다 스승님은 백 걸음을 내딛어 오시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된 연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http://www.in-sourced.com/article/articleview/1674/1/13/>

클라 뵈은 수행문답 

## 자연스럽게 명상을 즐겨라

정하이 무상사/ 2002. 8. 4.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 센터와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46

질문: 친애하는 스승님, 어떻게 하면 ‘만물 동일체’의 느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스승님: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일들을 돌봐야 하니까요. 그러니 그냥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명상을 즐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 ‘집’으로 가는 길에서

##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스승님

구술: 하와이 마이 라 사저/ 기록: 미국 버지니아 빈센트 응우엔 사형  
(원문 어울락어)

1991년 친구가 칭하이 무상사를 소개해 주면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빌려주었다. 나는 비디오를 다 본 후 입문하기로 결심했고, 1992년 2월 스승님께서 뉴저지 센터에서 열린 음력설 행사에 참석하셨을 때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날 모두 센터에 도착한 후 예비 입문자들은 한방에 모여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 스승님이 나타나 잠시 우리와 얘기를 하신 후 시자에게 잠시 자리를 비울 테니 그동안 우리에게 비디오를 틀어 주라고 지시하셨다. 시자가 튜 테이프는 내가 하와이에서 이미 봤던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왜 똑같은 테이프를 보여 주는 거지? 새로운 테이프를 틀면 안 되나?’ 하고 생각했다. 그 순간 스승님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는 게 보였다. 나는 순간 움찔하며 ‘스승님이 내 마음을 읽으셨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다. 아니나다를까, 스승님은 그 즉시 시자에게 중국어로 “그녀에게 새 테이프를 틀어 주세요.” 하고 말씀하셨다. 중국어를 알고 있었던 나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속으로 생각했다. ‘스승님은 정말 내 마음을 알고 계셔.’ 이

어서 시자는 새 테이프를 틀어 주었다.

스승님은 잠시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입문시키셨다. 그때 나는 스승님을 보면서 ‘스승님의 지혜안은 어디에 있지?’ 하고 생각했다. 그날 밤 꿈에 나타나신 스승님은 당신의 이마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여기가 내 지혜안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의 지혜안은 수정처럼 투명하게 빛나서 스승님의 머리 뒤쪽까지 투과해 보일 정도였다. 또 입문 후 일주일 동안 체험 중에 내가 정육점과 생선 가게를 가려고 할 때마다 “거기에 가지 말아요. 내가 있는 여기로 돌아와요.” 하고 일깨워 주시는 스승님의 말씀이 들렸다. 그래서 나는 스승님께 즉각 돌아와 스승님을 따라 많은 놀라운 세계를 참관했다. 이런 체험 중에도 내가 상스러운 곳을 기웃거릴 때마다 스승님은 내 이름을 부르며, “거기 가지 말아요! 이곳으로 돌아와 나와 함께 있어요.” 하고 말씀하셨다.

스승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생활했던 지난 12년 동안 내 삶은 평온하게 흘러갔으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졌다. 한번은 집을 사려고 한 적이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좋은 집들을 많이 보여 줬지만 센터에서 너무 먼 데다 당시 차도 없었던 내겐 맞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단체명상에 갈 때 나를 태워 주곤 하던 동수의 집 근처에서 멋진 집을 보게 됐는데, 그 집은 파는 것이 아니었다. 남편도 그 집을 보고선 마음에 들어해서 나는 그런 집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고 스승님께 기도드렸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마음이 있으면 어서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결국 우리는 그 집을 사게 되었고, 나는 주말마다 근처에 사는 동수의 차를 타고 단체명상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내가 수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반대하던 남편도 지금은 방법론을 수행하면서 친구들과 외식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 채식을 하고 있다. 남편은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여기 채식 음식이 완전 채식인지 먼저 확인해 봐.” 하며 늘 일깨워 준다. 또 때로는 주말에 “오늘은 왜 단체명상에 안 가?” 하고 챙기기까지 한다. 입문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내 삶을 지상 천국으로 바꿔 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모든 생명을 아끼면 자연의 균형이 유지된다

청하이 무상사/ 2001. 6. 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14

동물은 우리의 형제자매입니다. 동물이 존재하는 건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잘 보면 어떤 새나 동물이 이 세상에서 특별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수리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치웁니다. 물론 더럽히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동물의 일은 전체 환경과 지구 생태계의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고 대기를 맑고 깨끗하게 보존합니다.

모든 것이 제각기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는 지구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나무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정말 그럴 것입니다. 나무가 없으면 산소가 없어지니까요. 또 물을 끌어들이고 수분을 저장하는 나무가 없으면 물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를 포함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이 지구에서의 우리 삶을 보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모른다면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무 하나, 동물 한 마리를 죽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일이지요. 그러므로 나무를 베어야만 한다면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 그루를 심는 거지요. 하지만 나무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나무를 베기 전에 먼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신선한 공기를 만들고 우리의 나쁜 공기를 흡수할 만큼 자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이런 일은 크기는 비슷해도 오래된 나무가 젊은 나무보다 더 많이 해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능력도 많아지고 영적인 지혜를 비롯해 사물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지혜롭고 자연스럽게 일을 하라

청하이 무상사/ 2001. 6. 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14

자연스럽게 일을 하십시오. 아무 기대도 하지 말고요! 그냥 일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조건 없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포모사 난토우 소식

## 위험을 넘어 긴급 태풍 구호 활동을 펼치다

포모사 난토우 뉴스그룹 (원문 중국어)

2004년 7월 2일 태풍 민들레가 포모사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뒤 몰려온 강한 남서 기류로 폭우가 내리고, 포모사 중부 난토우의 산간 지역에서 산사태로 인해 심각한 이류(泥流)가 발생했다. 밤새도록 굶어치는 진흙의 급류가 집과 길을 덮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던 비옥한 평야의 많은 농작물을 망가뜨렸다. 이에 주민들은 충격으로 손을 놓은 채 이 물질 세계의 '무상' 한 일면을 사무치게 느끼게 되었다.

재난이 발생하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난토우 센터 동수들은 먼저 재해 지역 관청에 연락을 취해 사정을 파악한 후 이재민들에게 건조식품과 생수, 구호 물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7월 7일 동수들은 런아이 초등학교에 세워진 '태풍 민들레 이재

민 센터'에

첫 번째 구호 물자를 전달했다.

이어서 런아이 항공소의 사회복지과 홍평지아오 과장에게서 긴급 요청을 받고는 그 즉시 텐트 100세트를 구매해 이튿날 런아이 구호 센터에 전달했다. 홍 과장은 난토우 동수들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와 발빠른 지원에 감탄해 마지않았다. 동수들은 지역을 떠나기에 앞서 그녀에게 긴급 연락처를 남겼다.

7월 8일 밤에는 두 시간에 걸친 호우로 또다시 산간 지역의 5개 부락이 고립되었다. 다음날 우리는 홍 과장으로부터 난토우 항공소가 도로 유실 지점에 긴급 구조 센터를 준비하고 있으니 물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동수들은 7월 10일 아침 긴급 구



호 센터에 유아용 분유와 기저귀, 쌀과 조미료 등의 두 번째 구호 물자를 보냈다. 군부대에서 구호 물품을 내리는 걸 도와준 덕분에 임무는 순식간에 완수되었다. 동수들은 이 물품들이 신속하게 이재민들의 손에 넘겨지길 희망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소속 ‘무상사 구조대’는 7월 8일 아침 8시경 ‘행정원 원주민 위원회’의 난토우 행정국으로부터 긴급 물자 운송 지원도 요청받았다. ‘남의 고통은 곧 자신의 고통’이라는 정신으로 구조대 대원들은 사태가 시급한 런아이에서 구호 활동

에 임했다.

동수들은 이 지역에 토사가 여러 차례 발생해 길이 험난하고 지반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는 임무 수행을 위해 지프차 6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첫째 날에는 런아이 향의 신아이 마을에 2톤가량의 물자를 운송했고, 이튿날에는 징잉 마을에 2.5톤의 물자를 전달했다.

런아이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했지만 스승님의 축복과 평소 엄격한 훈련으로 동수들은 어렵지 않게 물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해 지역에 전달할 수 있었다.

## 포모사 소식

### 2004년 5월과 6월 동안 포모사 내 각종 사랑의 활동 지출 내역 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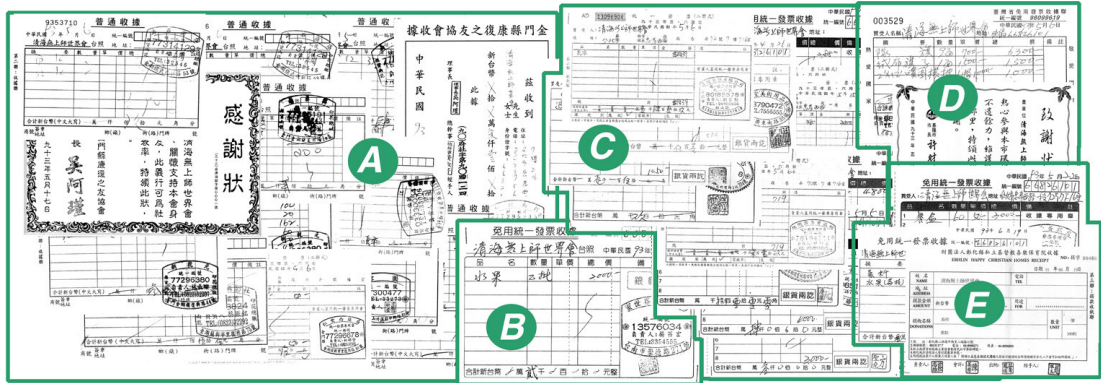
표 1과 2 합계: 총 175,884 NT(미화 약 5,234.64 달러)

표 1: 2004년 5월과 6월 동안 포모사 내 각종 사랑의 활동 명세표

(단위: NT 달러)

지역	날 짜	활 동 내 용	금 액	부 록
진먼	2004. 5. 8.	진먼 현 위생국에서 주최한 ‘장기 보호 박람회’ 자선 바자회 지출 비용 (채식 판매금 7,100달러는 진먼 정신재활협회에 전액 기부함)	3,124	A
타이난	2004. 5. 15.	타이난 시 환경보호국의 환경 보호 캠페인에 동참, 타이난 골든코스트 해변 청소 활동	2,000	B
핑둥	2004. 5. 16.	핑둥 현 주민들에게 영성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 차오조우 부락 경로당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 비디오테이프 상영 및 예술 창작품 전시, 건강 검진, 채식 음식 시식회, 영성 고양 세미나 및 방편법 전수 등의 활동	25,960	C
지룽	2004. 5. 22.	지룽 시 환경보호국의 환경 보호 캠페인에 동참, 와이무산의 아오디 어항 해변 청소	11,800	D
타이난	2004. 5. 27.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를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및 방편법 전수(동수 지원)	0	
창화	2004. 6. 19.	창화 현 ‘기독교 기쁨 보육원’ 방문, 원아들에게 단오절 선물 전달	3,000	E
타이난	2004. 6. 23.	타이난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를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개최(동수 지원)	0	
타이난	2004. 6. 24.	타이난 교도소 방문, 재소자를 위한 영성 고양 세미나 및 방편법 지도(동수 지원)	0	
합 계			NT\$ 45,884	





골드코스트 해변 청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난 센터 소속 어른, 어린이 동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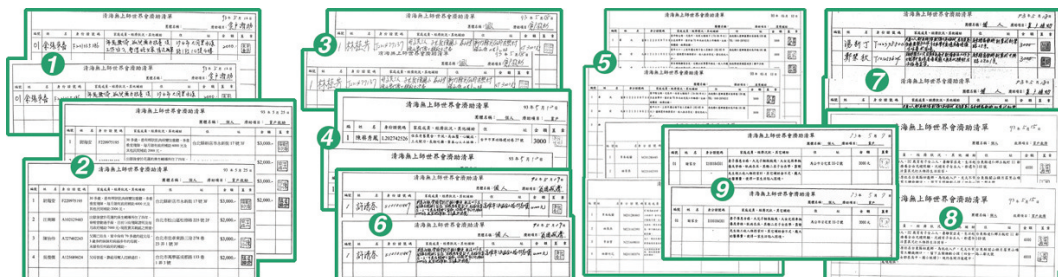


아름다웠던 해변을 되찾자: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지롱 동수들이 합심하여 지롱 시 환경보호국의 환경 보호 캠페인에 동참, 와이무산 아오디 어항 해변을 청소하고 있다.

표2 : 2004년 5월과 6월 동안 포모사 내 영세 가정 지원 자금

(단위: NT 달러)

지역	2004년 5월		2004년 6월		부록
	세대 수	금액	세대 수	금액	
지룽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4	10,000	4	10,000	2
신주	1	3,000	1	3,000	3
타이중	1	3,000	1	3,000	4
난토우	7	26,000	7	26,000	5
가오슝	1	4,000	1	4,000	6
핑둥	2	6,000	2	6,000	7
타이둥	2	8,000	2	8,000	8
핑후	1	3,000	1	3,000	9
합계	20	65,000	20	65,000	





#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포모사 24시간 인터넷 TV 방송국-영어,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us> (미국-다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불어, 영어,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 (미국-스페인어)  
<http://www.CauThongVoiThuongDe.com>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다국어 지원)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radio/aulac/> (캐나다 Real Audio & MP3-어울락어 유니코드)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quanyin.narod.ru/> (러시아-러시아어)  
<http://www.conta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http://www.godsdirectcontact.us/com/sb/>  
<http://www.godsdirectcontact.com/sb/index.html>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ejemplar>



##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센터	226-50-341704 smburkinafaso@yahoo.fr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센터	243-810583010 blessedcongo@yahoo.fr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35564987 saintearthmail@yahoo.co.uk
★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	Mr. Eric Razahidah	261-33-1115197 razahidah@hotmail.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566286 smchmauritius@intnet.mu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s. Dieketseng Napo	27-83-456-3968 dnapo@siza.co.za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캅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고이아니아	Mr. & Mrs. Erwin Madrid	55-62-3941-4510 erwinserrano@terra.com.br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 캐나다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anh2sd@hotmail.com
런던	센터	1-519-933-716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vif.com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l@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thehungnguyen@vif.com
오타와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22@shaw.ca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 콜롬비아

보고타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diachadicha@hotmail.com
-----	-------------------------------	---

##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	-------------

##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	---------------------	---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cmpkamelkamel@hotmail.com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center@contactodirectocondios.org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lapaire@sun.com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al Suffo	52-8-379-0897 mtcenter@starmedia.co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 니카라과		Mr. Loc Petrus	1-510-813-2300 petrusl2k4@gmail.com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ureach.com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플로리다 : *케이프코칼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Thaidbzad@msn.com
★ 파라과이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tls1095@earthlink.net
아순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 페루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enter@hotmail.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entro@yahoo.com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리마 센터	51-1-4716472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트루히요 Mr. & Mrs. Raúl Seugra Prado	51-44-221688 rsp_trujillo@hotmail.com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살바도르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산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캔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 트리니다드 섬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uji.Nguyen@ky.gov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jlfontenot@hotmail.com
★ 미국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에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메사추세츠 :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Ms. Gan Mai-Ky	1-508-791-7316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479-253-8287 bobedj@cox-internet.com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캘리포니아 :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mn@yahoo.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미주리 :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s@lps.org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네바다 :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워싱턴 :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시에틀	Mr. Ben Tran	1-425-643-3649
		c_newjersey@yahoo.com			benptran@aol.com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Mr. Edward Tan	1-206-228-8988
		JohnChou@ymusa.com			edtan@usa.com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anawarskas@hotmail.com			sumaemc@yahoo.com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 푸에르토리코		
		dong@phys.columbia.edu	카위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disnalda@caribe.net
		dcouch@rochester.rr.com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아시야***		
		ohiocenter@yahoo.com	★ 포모사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wisdmeve@aol.com			tpe.light@msa.hinet.net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Mr. & Mrs. Loh, Shih-Hurng	886-2-2706-2628
		ltran2292@yahoo.com			shloh@ndmctsggh.edu.tw
오리건 :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21618
*포틀랜드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Mr. Chu, Chen Pei	886-37-724726
		oregon_center90@yahoo.com	가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 홍콩	센터	852-27495534
		youping320@yahoo.com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529-3114			joyandlove3@hotmail.com
		DiepAshleyPa@aol.com	★ 인도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텍사스 :					shiva@cal.vsnl.net.in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 인도네시아		
		jldawu@yahoo.com	발리	센터	62-361-231-040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smch_bali@yahoo.com
		trandungdean@yahoo.com	Mr. Agus Wibawa		62-81-855-8001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wibawa001@yahoo.com
		DallasCenter@yahoo.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Mr. Tim Mecha	1-972-395-0225			smch-jkt@dnnet.net.id
		t.mecha@comcast.net	Mr. Tai Eng Chew		62-21-6319061
	Mr. Weidong Duan	1-972-517-5807			cte@envirotec.co.id
		water96@yahoo.com	Ms. Lie Ik Chin		62-21-6510715
	Mr. Jimmy Nguyen	1-972-206-2042			herlina@ueii.com
		JimmyHNguyen@yahoo.com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휴스턴	센터	1-281-955-5782			hai@cbn.net.id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cadamson@houston.rr.com			ketut@sinarimas.co.id
	Mr. & Mrs. Charles Le Nguyen	1-713-922-1492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cuc-le@houston.rr.com			yudi_wartono@telkom.net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robert.yuan@hp.com	메단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2049			smch_medan@hotmail.com
		lethong@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ahimsasb@indosat.net.id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Mr. Harry Limanto Liem	62-31-594-5868
		anhhy@hotmail.com			harry_1@sby.dnet.net.id
*버지니아비치	센터	1-757-461-5531	요약카르타	Mr. Madyana Putra Augustinus	62-274-411-701
		liem_le23502@yahoo.com			

		t,adianingtyas@lycos.com	팔라룸푸르	센터	603-9287-3904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247			klsmch@tm.net.my
		ya05@netvision.net.il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 일본					klgcp@hotmail.com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페낭	센터	604-2285853
		divinalv@nth.biglobe.ne.jp			pgsmch@pd.jaring.my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Mr. & Mrs. Lim Wah Soon	604-6437017
		tateyama_lg@yahoo.co.jp	★ 몽골		
도쿄	Ms. Yukiko Sugihara	81-90-6104-5770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10908
		lotus@sky.plala.or.jp		baasandamba@yahoo.com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y-plus@f6.dion.ne.jp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27
★ 한국			★ 네 팔		
	출판사	031-772-9250	카트만두	센터	977-1-4254-481
		chinghai@unitel.co.kr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Mr. Ajay Shrestha	977-1-4473-558
		houmri1@kornet.net		ajaystha@hotmail.com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포카라	센터	977-61-28455
		goldenseoul@yahoo.co.kr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유태인	02-795-3927		neupanebishnu@hotmail.com	
	이지자	02-599-1701		Mr. Shiva Bastola	977-61-28255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chinghaibusan@hanmail.net	★ 필리핀	마닐라 센터	manilach@hotmail.com
	송호준	051-957-4552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황상원	051-805-7283		chinghai@singnet.com.sg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shc5824@hanmail.net	★ 스리랑카		
	신현창	063-254-5824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인천	인천 센터	032-579-5351		samantha_nbt@zeynet.com	
	이재문	032-244-1250	★ 태국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방콕	센터	662-674-2690
		chinghaidaegu@hanmail.net		bkk_c@hotmail.com	
	김익현	053-633-3346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한선희	053-767-5338			66-2-5914571
	차재현	053-856-3849		edasnlad@stou.ac.th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nian	66-50-332136
	김수동	042-254-7309		siriwanli@hotmail.com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콘캔	센터	66-43-378112
	조명대	061-394-6552	송크라	센터	66-74-323694
		smgwangju@naver.com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김삼태	054-821-3043			
제주	제주 센터	064-99-6113			
★ 라오스			*** 유럽 ***		
비엔티안	Mr. Somboon Phetphommasouk	856-21-415-262	★ 오스트리아		
		somboon_9@hotmail.com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 마카오	센터	853-532231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acau_center@email.com		Mr. Shih-Tsung Lu	43-699-12272892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벨기에		sound@gmx.at
★ 말레이시아			브뤼셀	Ms. Ann Goorts	31-6-11-240-115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gotske@yahoo.fr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 불가리아		
		supreme2@tm.net.my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8575358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oldruslan@yahoo.com 359-32-940726 chinghaiplovdiv@mail.bg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dublinquanyin@yahoo.co.uk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osloqy@online.no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zak 48-91-4874953 gingal@wp.pl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포르투갈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 핀란드	헬싱키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kolumbus.fi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 슬로베니아	루블랴나	Mr. Janez Pavlovic 386-41-320-268 janez.pavlovic@siol.net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마리보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 스페인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파리	센터 33-1-4300-6282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Ms. Lidia Kong 34-91-5470366
★ 독일	베를린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Mr. Claudio Silva 34-667090831 claudiosilvaspain@yahoo.es
		센터 49-30-3470-9262 pureocean@web.de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3-4846374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 스웨덴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Angelholmswe@yahoo.com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sweden@tele2.se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_source@t-online.de	말뫼	Mr. & Mrs. John Wu 46-40-215688 john.wu@bolina.hsb.se	
★ 그리스	아테네	Ms. Vicky Chrisikou 30-210-9321920 luckychrisikou@yahoo.gr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khong@wanadoo.nl			Ms. Klein Ursula 41-22-3691550 uklein@tiscali.ch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 영국	임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m@ntlworld.com
		Mr. Lux Tamas 36-304273364	런던	센터	pnl@matters19.freemove.co.uk
		Ms. Dora Seres 36-1379-1924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기요르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Mrs. C. Y. Man 44-1895-254521 chuk_yee_man@hotmail.com	
★ 아일랜드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866489	



janet.weller7090@ntlworld.com			rosrobbery@aol.com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stmchwo@hotmail.com		phongloveme@yahoo.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Mr. Alan Khor	61-3-9857-4239	
		lillig2002@yahoo.co.uk		ckhor@bigpond.net.au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Mr. Ly Van Tri	61-8-9242-2848	
		leonadelaide@hotmail.com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Mr. Ly An Thanh	61-2-9823-8223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anbinh_sydney@yahoo.com.au	
		ctieng@telstra.com	★ 뉴질랜드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dlch136@hotmail.com		takahide@xtra.co.nz	
바이런베이/				Mr. Peter Morrin	642-172-2776
노던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ptr@ihug.co.nz	
		ray_jule@bigpond.net.au		Mr. Chang Jen-Hor	64-9-274-9298
캔버라	Mr. Hoang Khanh	61-2-6259-1993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smcanberra@hotmail.com		nzchcmch@hotmail.com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 SM 경서팀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9-883-778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 LA 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09-738-9992

##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888@hotmail.com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 포모사 타이베이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031-772-9250  
팩스: 031-772-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대한민국 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ril@kornet.net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



## 만세 등의 매혹적인 아름다움

반짝반짝 사저/ 포모사 (원문 중국어)



넘치고 신선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감로 성배(聖  
杯)'의 경우, 뒤집어  
진 형태의 전등갓을  
사용해 아래의 불빛이  
아낌없이 발산됨으로써

빛의 우유가 넘쳐흐르는 잔  
의 형상을 띤다. 또한 '천국의 연  
꽃'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곡선이  
돋보이면서도 생명력이 한껏 느껴  
지는 작품이다. 바깥으로 펼쳐진 꽃  
잎 사이로 흘러나오는 빛의 물결은  
방안에 가득 스며들어 매혹적인 동  
화 속의 왕국을 창조한다.

스승님이 최근 디자인하신 대나  
무 램프 시리즈의 하나인 '신의 손'  
은 다섯 손가락에서 하늘을 향해  
빛을 발산하는 모습이 마치 석가모  
니 부처가 달을 가리킨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것 같은데, 이는 관음  
법문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가 가진  
신의 품성과 달빛처럼 때묻지 않은  
내면의 빛을 기억하고 스승님을 따  
라 끝없이 즐거운 천국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일깨우시는 스승  
님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만세등을 밝힐 때마다 포근한 빛줄기가 사위를 밝히고  
우주에 가득 차며 그 속의 모든 것을 녹이고 내 가슴에 스며드는 듯  
하다. 전원을 켜는 순간 마음속의 불순한 생각이나 잡념들이 흔적도 없  
이 사라지고 그 순수하고 부드러우며 따사로운 빛으로 정화된다.

전능하신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이 특별한 등들은 이렇게 해서 지고  
하신 어머니의 영원한 사랑을 반사하고 사람들에게 깊고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혼자 있어도 만세등과 함께라면 그 빛이 비할 수 없는 에너  
지를 발산해 온 방안에 따뜻한 분위기를 더해 준다. 고전적인 궁정 예  
술 작품의 정제미를 표현한 만세등은 글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독  
특한 스타일을 자랑한다! 목재 탁상용 램프인 '달빛'을 예로 들어 보  
자. 이 작품에서 스승님은 한 점 구름 위에 달을 얹혀 영원히 우리 곁  
을 지키게 하고 수시로 그 부드러운 '달빛'에 잠기게 하신다. 마찬가지로  
장엄한 형태로 만들어진 '산하(山河)'에서는 구름 몇 점이 떠 있는  
가운데 살아 숨쉬는 대자연의 맥박이 느껴진다. 또한 여러 각도에서 감  
상하면 더 큰 경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깨달음'의  
빛나는 별들은 밤하늘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었다. 귀엽고 자  
연스러우며 장난기가 가득한 디자인은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불러일으  
킨다.

위에 언급한 탁상 램프와 같은 계열인 거실 램프는 매우 다양한 데  
다 스승님의 영감 넘치는 상상력이 일반 디자이너들보다 훨씬 생동감



디자이너: 청하이 무상사



독특한 형태로 영성의 광채를 내뿜는 만세등  
'빛으로 눈부신 영겁'을 상징하다



▲ 신의 손

감로 성배 ▶



▲ 산하



▲ 깨달음



천국의 연꽃 ▶





영혼의 고양

## 칭하이 무상사의 새로 나온 책

〈한국어판〉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

—만화로 보는 지혜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주는 칭하이 스승님의 애정 어린 선물이다. 천국에서 방금 내려온 어린이들은 글자를 깨치기 전이라도 이 사랑스러운 만화책에 담긴 진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승님의 사랑이 집약된 이 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읽기 좋은 영성의 양서이다.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CD-E730 〈영어〉

**사랑으로 소통하라**

2001. 12. 25. ~26.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이 CD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스승님의 답변도 담겨 있다. 왜 식탐하는 사람들은 식물에게까지 원망을 듣는가?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스승님은 이 외 음식이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시는 한편 사람들에게 스승님의 육신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스승의 힘은 언제 어디서나 물질 세계의 유희 법칙에 종속됨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셨다. 풍부한 내용의 이 CD를 꼭 들어 보시길!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691 〈영어 + 26개 국어 자막〉

**환상은 실재의 반영이다**

2000. 5. 3. 필리핀 마닐라 강연

**내용 요약:** 스승님은 이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하셨다. 왜 신 앞에서는 모든 중생이 평등한가? 우리는 왜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성경의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구절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유일한 목적은 무엇인가? 진선미와 대조적인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의미는?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육체를 갖고 살아 있는 동안 해탈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스승님은 명확하고 통쾌한 설명으로 우리가 환영의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미묘한 관계를 보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Elevation of the Soul